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 및  
조력에 관한 질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근 영

2012년 8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 및 조력에 관한 질적 연구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근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김근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국문 초록>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 및 조력에 관한 질적 연구

김 근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과정을 통해 학교를 떠나 사회에 정착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탐색에서 필요로 하는 조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아동·청소년백서의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거의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의 원인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갖고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을 살펴보고 조력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에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무엇인가?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탐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센터에 의뢰된 학업중단 청소년 중 20명을 예비면접을 실시하였고 이 중 본 연구에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적합한 진학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이며 동시에 복교, 검정고시를 수단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목적적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 사례 9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심층면담 하면서 수집된 자료는 영역분석, 분류분석, 삼각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조력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어려움, 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 목적의식 부족, 자신감 부족,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 정보수집에 대한 어려움, 근로경험에 대한 어려움, 정서적지지 부족 등의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조력요구를 바탕으로 시간관리, 정보수집, 학습, 취업, 전문적 상담 등에 관해 정보 및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진로조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부정적인 시선 대신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선을 통해 이들이 학업중단 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 취업, 프로그램 개발 욕구와 관련하여 검정고시 관련정보 제공, 학습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도입 그리고 직업훈련기관 확대 및 취업 정보 제공, 그리고 자신감, 목적의식,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조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로조력에 있어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어우러져 심리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진로발달을 도우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이들이 진로장벽을 극복하며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 문제 .....                 | 4   |
| II. 이론적 배경 .....               | 5   |
| 1. 학업중단 청소년 .....              | 5   |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          | 8   |
| 3. 학업중단의 원인 .....              | 10  |
| 4. 진로장벽 .....                  | 13  |
| 5. 진로조력의 필요성 .....             | 19  |
| III. 연구방법 .....                | 22  |
| 1. 연구참여자 선정 .....              | 22  |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 27  |
| IV. 연구결과 .....                 | 30  |
| 1. 학업중단의 원인과 배경 .....          | 30  |
| 2.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           | 49  |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조력 방안 모색 ..... | 79  |
| V. 논의 .....                    | 91  |
| 참고문헌 .....                     | 98  |
| Abstract .....                 | 107 |
| 부 록 .....                      | 110 |

## 표 목 차

|                               |    |
|-------------------------------|----|
| <표Ⅱ-1>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어 정리 ..... | 5  |
| <표Ⅱ-2> 학업중단을 .....            | 7  |
| <표Ⅱ-3>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     | 9  |
| <표Ⅲ-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      | 23 |
| <표Ⅲ-2> 면접용 카드 .....           | 27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 중도탈락에 미치는 요인들 .....       | 11 |
| [그림 II-1]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사회인지적 영향 ..... | 16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성장 발달하는 존재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는 제 2의 탄생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진로결정은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한 장래계획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진로결정을 위해 진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입시위주로 치우쳐 있어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도 아동·청소년백서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중학교 신규 졸업자 중 99.7%의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0.3%에 해당하는 2,346명이 졸업생들이 진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중학생의 0.8%인 20,101명이, 고등학생의 1.8%인 32,943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즉, 2009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53,044명으로 전체 중·고등학생의 2.6%를 차지했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로 빈곤·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비행·일탈로 인해 학교로부터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억압적인 학교분위기라든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빠른 대학진학, 조기유학, 내신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업중단도 나타나고 있다 (이창호, 2002; 금명자, 2004). 이처럼 최근의 학업중단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요인에 의한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선행연구(조혜정, 1996; 유성경·이소래, 1998; 조아라, 2000; 김민, 전경숙, 2003; 김기형, 2006; 조영숙, 2007)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업중단은 어떤 한 요인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소용(2000)도 이야기 했듯이 학업중단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중도탈락의 징후가 다양하게 반복되어 나타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시기로서 학업, 직업에 관련한 장래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학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학업중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각종 교육과 사회적인 보호를 받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거나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는데 학업중단이라는 결정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낙오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학업중단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비행이나 범죄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준호 외, 2006; 김진화 외, 2002).

위와 같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에 봉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상황과 맞닿게 된다. 이는 개인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대부분의 교육활동 및 지원이 일반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입장과 관점에서 진로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학업중단 이후에도 학업유지 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이 많고(조영승 외, 2001; 서유석 외 2000, 금명자, 2004), 본인의 진로 목표나 정착유형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 간의 진로장벽을 파악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연구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문제아로 인식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학교 속에 다시 집어넣으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업중단의 원인 및 실태를 양적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들(표갑수, 1993; 김경식, 1997; 이숙영 외, 1997; 박수민, 1998; 박창남 외 2003; 김순규, 2001; 이혜영, 2001; 김순규, 2002; 조아미, 2002; 윤미경, 2002; 전종희, 2005; 고미숙, 2005)로 학업중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례를 가지고 질적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들(최영신, 2001; 김혜영, 2002; 박현선, 2003; 홍임숙, 2004; 성윤숙, 2006)은 사례분석, 문화기술, 현실기반이론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중단과정과 문화적 이해 및 삶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연구에서 주금옥(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았고, 김지혜(2008)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및 조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진로상담과 조력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나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획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험하는 다양한 진로장벽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조용환, 1999) 위해 질적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이 진로장벽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와 현재의 생활을 기술하며 그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진로장벽은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러한 진로장벽을 통해 이들의 진로 결정 및 준비를 돕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 및 조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에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업중단 청소년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업중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학업중단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에서도 그들 각각의 정의에 따라 혹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상이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학교 밖 청소년, 중퇴생, 학교중퇴, 학교중단, 중도탈락, 학교중도탈락, 학교를 떠난 아이들 등 다양한 기준에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김지혜(2008)는 기존 청소년의 학업중단 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명칭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어 정리

|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어 | 용어 인용 연구  |
|---------------|---|
| 학교 밖 청소년      | 금명자, 권혜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2004)                             |
| 중퇴생           | 장석민(1988),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2001)<br>신현숙, 구본용(2002)     |
| 중퇴청소년         | 황선미, 신현숙(2007)  |
| 학교중퇴          | 표갑수(1992), 오현애(2002), 이승재(2004), 김용훈(2006)                |
| 학교중단          | 이소영(2002)   |
| 학업중퇴          | 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1996)<br>조아라(2001), 김순규(2004) |
| 학업중퇴 청소년      | 박현선(2003)   |

|                  |  |
|------------------|--|
| 중도탈락             | 이숙영(1997), 유성경, 이소래(1998), 윤미경(2002)<br>배영태(2003)  |
| 학교중도탈락           | 김민정(2001), 김혜영(2002), 배영태(2003)  |
| <b>학업중단 청소년*</b> | 이병환, 윤여각, 이창호, 지승희, 장미경(2002),<br>김동민, 금명자,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 이광호(2003)<br>전경숙, 윤미원(2006), 최정자(2007), 김지혜(2008) |
| 학교를 떠난 아이들       | 안현의(2002), 홍임숙(2004),  |

출처 : 김지혜(2008)

위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한 용어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기술하고 있다. 이 명칭들은 ‘학생 대 청소년’, ‘학교 대 학업’, ‘중퇴 대 중도탈락 대 중단’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중퇴’는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을, ‘중도탈락’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떨어져나감을, ‘중단’은 중간에서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때, 중퇴는 그만두는 자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은 원하지 않으나 떨어져 나온 것과 같은 수동성이 있다. 반면 중단은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중성적인 특성이 있다(김지혜, 2008).

2001년에는 공교육중도수료자라는 용어가 제안되기도 했다. 2002년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업중단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였다(이병환, 2002). 또한 2003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 42조에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규정하여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성연 외(2008)는 학업중단은 현상을 나타내는 중립된 용어로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과 책임을 청소년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한 학기 이상, 두 학기 동안 학업을 중단 하거나, 상당히 오랫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학업을 이수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학업중단 청소년’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령에 의거하여 인허한 학교 또는 동등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 하지 않고,(졸업을 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행동 즉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난 상태를 ‘학업중단’ 이라고 한다.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

학업중단율은 총 재적 학생 수에 대한 제적자, 중퇴자 및 휴학자의 비율을 말한다. <표Ⅱ-2>와 같이, 학업중단율은 1990년대보다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중·고등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그 해의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의 수에 대하여 1~2%정도로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꾸준히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지는 않았더라도 미래에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구자경 외, 2001; 박영숙, 1999; 박창남 외, 2001; 조아미, 2002). 만약 학업중단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Ⅱ-2> 학업중단율(1985년~2009년)

(단위: %)

| 구분   | 중학교<br>비율 | 고등학교    |           |           |
|------|-----------|---------|-----------|-----------|
|      |           | 계<br>비율 | 일반계<br>비율 | 전문계<br>비율 |
| 1985 | 1.2       | 3.3     | 2.7       | 4.3       |
| 1990 | 1.0       | 2.4     | 1.9       | 3.2       |
| 1995 | 1.0       | 2.4     | 2.4       | 3.9       |
| 1996 | 1.1       | 2.5     | 1.3       | 4.2       |
| 1997 | 1.2       | 2.6     | 1.3       | 4.4       |
| 1998 | 0.9       | 2.1     | 1.1       | 3.6       |
| 1999 | 0.9       | 2.1     | 1.2       | 3.7       |
| 2000 | 0.7       | 2.3     | 1.1       | 4.4       |
| 2001 | 0.7       | 2.2     | 1.2       | 4.2       |
| 2002 | 0.5       | 1.9     | 1.2       | 3.7       |
| 2003 | 0.7       | 1.6     | 0.9       | 3.2       |
| 2004 | 0.7       | 1.3     | 0.8       | 2.5       |
| 2005 | 0.8       | 1.3     | 0.8       | 2.6       |
| 2006 | 0.9       | 1.6     | 1.0       | 3.1       |
| 2007 | 1.0       | 1.8     | 1.1       | 3.5       |

|      |     |     |     |     |
|------|-----|-----|-----|-----|
| 2008 | 1.0 | 1.8 | 1.1 | 3.8 |
| 2009 | 0.8 | 1.8 | 1.2 | 3.6 |

- 1)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 수/재적 학생수)\*100
-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 3) 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풍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재적·중퇴 및 휴학자임
- 4)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봄
- 5) 자료의 제한으로 1990년까지는 학업중단자에 사망자, 유학/이민자가 포함되었으며, 1995년에는 유학/이민자가 포함됨. 2000년부터는 사망자, 유학/이민자가 제외됨
- 6) 고등학교에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 중 제주도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업중단 학생수는 지난 2007년 342명, 2008년 393명, 2009년 4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을 포함할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은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학업중단 고등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2.1%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 2.0%, 광주 1.98%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0%로 전국 16개 시·도 중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내에서 한해 5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대책이나 보호육성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학업중단 현상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졸업하지 않은 상태의 개념에서 변화하여 학업중단의 동기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의 개념 속에 내포된 속성 즉 동기, 요인, 상황, 중단 이후의 생활 등에 따라 학업중단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다.



<표 II-3>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 연구자                                | 유형                                 |                             | 특징  |  |
|------------------------------------|------------------------------------|-----------------------------|---|--|
| 송광성<br>(1992)                      | 능동형                                | 취업준비형                       | ·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 적극적 해결  |  |
|                                    |                                    | 진학형                         |   |  |
|                                    | 도피형                                | 부등교형                        | ·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   |  |
|                                    |                                    | 탈출형                         | · 학교를 빠져나가 흥미로운 생활 추구   |  |
|                                    | 불가피형                               | 가사형                         | · 집안 형편상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  |
|                                    |                                    | 제적형                         | · 심각하나 비행으로 학교에서 제적   |  |
| 이숙영<br>·<br>남상인<br>(1997)          | 적응형                                | 진학형                         | · 복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에서 수학<br>· 학습의욕 상실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응<br>· 대인관계 문제, 생활적응상의 문제를 가짐 |  |
|                                    |                                    | 건전직장<br>취업형                 | ·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정착<br>· 진학준비를 병행하기도 함                                       |  |
|                                    |                                    | 취업준비형                       | ·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기술습득<br>· 일부는 적응 상에 문제를 겪고 있음                      |  |
|                                    | 부적응형                               | 보호 및<br>관리체제에<br>소속된<br>청소년 | 소년원 수용  | · 범죄 연루 소년원 수용   |
|                                    |                                    |                             | 보호관찰 중  | · 범죄연루 후 보호관찰 중<br>· 검정고시 등을 통한 진학준비 병행<br>·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병행 |
|                                    |                                    |                             | 요양중   | · 정신 및 신체질환으로 병원, 요양기관 수용                                      |
|                                    | 보호 및<br>관리체제에<br>소속되지<br>않은<br>청소년 | 방치된 비행<br>청소년               | · 중퇴 후 진학, 취업준비에 참여하지 않음<br>· 다양한 비행-폭력, 약물오남용 등에 참여                            |  |
|                                    |                                    | 유흥업소 취업                     | · 단란주점, 술집 등에 취업 중  |  |
|                                    |                                    | 가출 청소년                      | · 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함<br>· 중국집, 카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취업<br>· 비행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  |
|                                    |                                    | 방치된 정신질환<br>청소년             | ·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집안에 방치됨<br>·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증가됨                                      |  |
| 박창남<br>임성택<br>전경숙<br>김성식<br>(2001) | 정착형                                | 진학형                         | · 학교는 나왔지만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함<br>· 대안학교, 검정고시 희망                                     |  |
|                                    |                                    | 취업형                         | · 취업을 원하는 유형  |  |
|                                    |                                    | 직업훈련형                       |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유형   |  |
|                                    | 비정착형                               | 시설수용형                       | · 범죄행위에 벌을 받아 강제로 시설에 수용  |  |
|                                    |                                    | 방치형                         | · 가출을 동반하거나 비행성향이 있는 유형   |  |

전통적인 학업중단의 유형분석을 보면, 우선 송광성 외 (1992)는 학업중단을 결심하는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한다. 이 세 가지 구분은 학업 중단 이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나눈 것으로, ‘능동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단한다. 즉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입시 준비나 취업 및 기술습득 등을 위해 학업중단을 시도하는 것이다. ‘도피형’은 학교기피, 교칙위반, 성적불량, 교사기피, 불량교우, 학업태만, 친구로부터의 소외 등 학교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뚜렷한 대안 없이 막연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불가피형’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단하는 경우로 집안형편상 혹은 비행이나 범죄 같은 일탈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숙영 · 남상인 · 이재규(1997)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태도를 기준으로 정착형, 비정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착형에는 일정기간 방황하다가 학교에 복교하거나 검정고시학원이나 대안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하는 진학형, 사설기술학원이나 직업훈련원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형,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을 꾸려가는 직장취업형이 여기에 속한다. 비정착형에는 크게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수용되어 관리되고 있거나 각종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청소년과 방임된 청소년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학업중단의 동기에 따른 송광성(1992)의 분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며,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유형에 따른 이숙영 외(1997)의 분류는 학업중단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유형에 따른 구분 중 적응형인 진학형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을 살펴 조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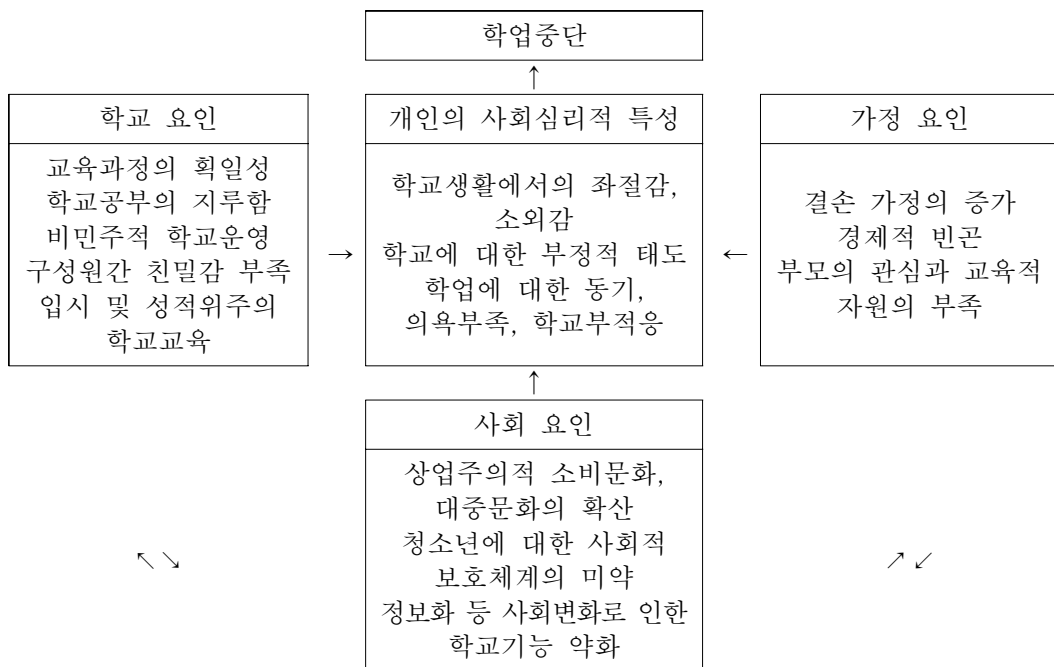
### 3.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의 원인을 독립된 몇 가지 범주로 나눠 그 요인을 분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원인과 다른 원인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중퇴의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Dupper(1993)는 학교중퇴의 원인을 학교, 경제, 가족, 개인적 요인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요인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의 부족, 처벌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생각, 반복되는 무단결석, 학교처벌, 부정적인 학교경험 등이 예측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가난이 중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나 순위 형제자매가 중퇴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교육적인 목표가 매우 낮은 경우 중퇴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개념과 외부적인 통제의 소재가 매우 중요한 예측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Levin(1986)은 학업중퇴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사건으로 청소년 자신과 함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상황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변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즉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1] 학업중단에 미치는 요인들(이해영, 2001)

이혜영(2001)은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요인,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 가정요인, 사회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소외감, 좌절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의욕부족, 학교 부적응과 같은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고 했다.

강승태(2002)의 연구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나 교육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이 이유가 되는 사회적 요인, 학교의 교칙위반이나 친구 또는 교사와의 갈등의 학교관련 요인, 가족의 불화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가정 관련 요인, 자신의 성격이나 대인관계 등의 개인적 요인이 학교를 떠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학업중단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각 영역별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금명자(2008)도 학업중단의 주요 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교우, 지역사회로 구분하였고 이들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서 학업중단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가정, 학교, 사회의 여러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권이중(2004)은 청소년 학업중단 발생 원인을 개인적, 가정적, 학교적, 사회적요인 등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잘못된 생활양식, 상황판단의 미숙, 자기통제력 부족, 신체적 요인, 자신감 결여 등을 들었고,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정 내의 폭력, 부모의 실직, 빈곤가정,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을 들었다. 학교적 요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 획일적이고 관료적·권위적인 학교풍토,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 학교 내의 각종 폭력 등을 들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공교육 불신, 사회 학벌주의, 각종 유해환경, 세대 간 갈등과 몰이해 등을 들고 있어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1)이 펴낸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생활 부적응(45.1%)이 가장 많았고, 유학·이민 등 기타(36.2%), 가사(11.6%), 질병(5.8%), 품행(1.2%)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업중단 사유로 포함된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가장 높은 사유로 꼽혔다. 개발원은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중단의 주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했다며 학업중단 문제를 학교교육의 부실과 유기라는 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빠른 대학진학, 조기유학, 내신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업중단처럼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도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정부의 복교위주의 정책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수준별 학습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및 학교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업중단 현상을 일탈행동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시각과 해결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 소수 비정상적인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발생하는 것으로 다원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고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이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 4. 진로장벽

### 1)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진로장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Crites(1969)는 직장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이라 칭하였으며, “장벽(barriers)” 또는 “자각된 장벽(perceived varriers)(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Shuttleworth.

1992)", 진로와 관련된 장벽(career-related barriers)"으로 명명된 경우도 있었다(Lauzzo, 1997). 이후 Swanson과 Tokar(1991)에 의해서 진로장벽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가 개발되고,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최근에는 점차 “진로장벽”이란 용어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손은령, 2001 재인용).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로 주로 진행되고 있어(김선중, 2005; 손은령, 2001; 이성식, 2007) 본 연구에서도 “진로장벽”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장벽에 대한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내적장벽과 개인 외적장벽을 포함하고 있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a, 2002). 내적 장벽은 심리적인 측면의 장벽들이며, 외적장벽이란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이다.

초기에는 진로장벽이 이처럼 개인 내부에 있는 것인지, 외부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개인 내적장벽과 개인 외적장벽의 이분법적분류방식으로 구분되어 오다가 이분법적 분류의 단순화가 지적되면서 삼분법적 분류가 제안되었다. 이후 진로장벽 연구는 인위적인 분류를 벗어나 현실상황에서 지각되는 진로장벽을 분류하는 다원적 분류의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또한 학자들은 진로장벽은 개인이 주어진 사실과 환경 속에서 인식하는 정도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분류에 있어서도 다르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진로장벽이 개인에 따라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다르고 이러한 장벽에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임을 지적하고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곧 진로장벽이 주관적인 것이며, 진로장벽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room(1964)은 기대와 유인가에 따라 개인의 행동 경향이 달라지며, 개인이 특정 분야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유인가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정서적 지향성”이라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호성을 뜻한다. 그러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긍정적인 유인가만으로는 선택이나 행동이 촉진되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가 달성될 거라는 믿음 즉, 기대가 수반되어야만 선택이나 행동이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결과에 대한 유인가와 그 직업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에 기반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며, 바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직업적 선호 즉, 유인가가 맞물려서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직업선택은 직업과 관련된 장벽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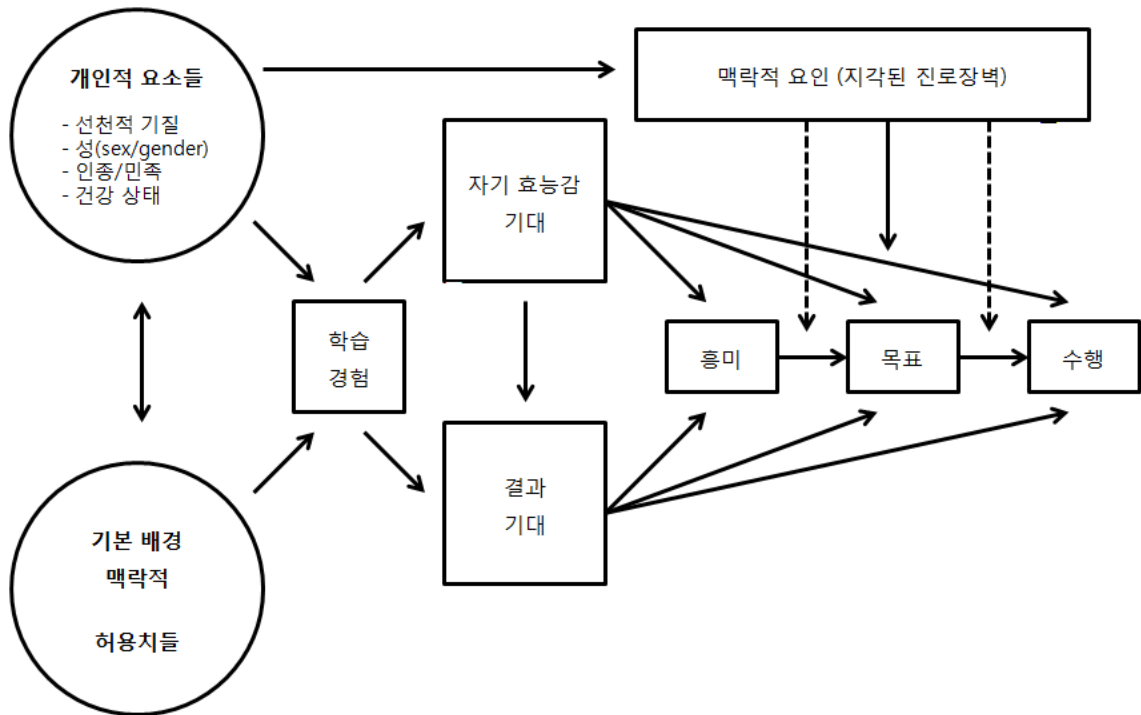
## 2)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CCT)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에서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Bandura(1982)의 사회 인지 이론을 적용한 Lent 등(1994)의 사회인지모델은 진로 관련 장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Albert & Luzzo, 1999; Lent, Brown, & Hackett, 2000; McWhirter, Torres, & Rasheed, 1998; Swanson et al., 1996; Swanson & Woitke, 1997). 이 모델에서는 사회 인지적 기제 특히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진로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흥미, 선택 목표, 선택 행동이나 수행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 인지 모델에서는 개인적 요인, 맥락적 요인과 경험적인 요인들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사회인지적 변인들이 흥미, 목표와 선택 행동들 간의 가정된 관계를 중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맥락적인 영향은 흥미, 선택 목표에 대한 흥미, 그리고 선택 행동의 선택 목표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가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맥락요인들이 어떻게 진로 선택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사회인지적 영향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II-2>과 같다. 이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진로선택과정에 미치는 상대적 근접성에 따라 특정 맥락적 변인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이 경험한 학습과정이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배경요인들이고, 두 번째 차원은 배경요인들보다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맥락요인으로 개인의 교육단계나 진로결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 참여 경험이나 진로정보 여부, 개인의 진로 네트워크 접촉, 진로 경로에서의 어려움 즉 지각된 진로장벽 등이 포함된다. 맥락요인들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하게 하거나 수행하게 하여 진로 발달과정에 중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II-2>을 보면 개인 요소들(성향, 성, 인종/민족, 신체장애/건강상태)은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맥락적 요인(지각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 진로수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한다(Lent et al., 1994).



[그림 II-2]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사회인지적 영향  
(Lent, Brown & Hackett, 1994)

사회인지모델(SCCT)에서는 진로장벽 즉, 모든 유형의 해로운 사건이나 조건들을 개인 내적인 것과 맥락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종종 같이 발생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Swanson & Tokar, 1991a;



Swanson & Woitke, 1997; Lent et al., 1998). 장벽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맥락적인 영향”들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맥락적인 장벽은 앞서 보았듯이 불리한 개인적 요인들(예, 좋지 않은 학습 조건화는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과 아직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Lent et al., 2000).

진로장벽 연구를 위한 사회인지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잇점은 장벽 구성개념을 더 확장된 체계적인 틀 속에서, 다른 중요한 진로 변인들과의 관계를 허용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장벽에 직면하고 극복하는지를 언급하는 개입 전략을 찾아내게 하고 개입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Brown & Lent, 1996; Hackett & Byars,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모델의 통합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개인 내적이고 맥락적인 원천을 포함하는 다양한 원천에서 진로 장벽이 기인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Swanson & Tokar, 1991b),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실이나 실제적인 정보에 기인하는 객관적인 장벽보다는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지각된 진로 관련 장벽’들이 진로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Albert & Luzzo, 1999; Swanson & Woitke, 1997).

### 3) 학업중단 청소년과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결정과 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장벽을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의 진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ottfredson(1981)의 진로포부 발달이론에 의하면, 지각된 진로장벽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확고해진다. 이때 지각된 진로장벽은 상급학교 진학과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황선미, 신현숙(2007)에 의하면 진로장벽에 있어서 흥미부족을 제외한 진로장벽 측정변수들(불명확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정보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능력부족)이 학업중단 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특히 불명확성(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자신감의 부족), 정보부족(진로결정과정, 자신, 직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 흥미부족(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무지 또는 부족), 미래불안(진로에 대한 걱정과 불안), 능력부족(직업에 필요한 자격, 기술,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진로장벽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주금옥, 2002).

청소년기의 진로 지도를 통해 분명한 진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도록 촉진시키는 일은 자아정체감 형성은 물론 부적응적 행동의 예방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방해 요인들은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선택하며 그에 따른 효능감을 갖게 하는 진로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예방적 차원에서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구체적인 진로장벽이나 진로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Swanson & Woitke, 1997)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파악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김봉환(1997)은 진로발달이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진로결정과 준비행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회로 들어가는 시기를 일찍 경험하게 되므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로개발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신현숙, 구분용, 2002; 안현의, 2002)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다양한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지도 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각하게 되는 진로장벽이다.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결정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장벽과 같은 사회맥락변인의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맥락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양난미, 2005), 맥락 변인의 대표적인 예가 진로장벽이다. 손은령(2001)은 진로준비행동 중 지각되는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가 진로상담가나 진로연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조사하고, 이러한 장벽들을 예방, 또는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5. 진로조력의 필요성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조영승 외 2001; 서유석 외, 2000)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복학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학업중단 후 복학절차, 검정고시준비,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 싶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30% 정도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든지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 즉 이들 중에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기는 하였지만, 학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금명자(2004)의 연구에서 ‘학업중단 후 하고 싶은 일은?’ 58.4%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준비(40.1%), ‘전문능력 키우기’(39.7%), 취업이나 기술 습득(3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서 복학은(17.5%)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취업을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학업의지와 진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욕구와 달리 학업을 중단 하고 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처음 계획대로 안 됨(45.9%), 미래에 대한 막막함(43.5%),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39.9%), 부모와의 갈등(33.4%) 등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학업중단 이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olk(1984)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졸업자보다 평생 동안 적어도 4분의 1은 적게 벌 것으로 추정하였고, 다른 학자들(McDill 외, 1986)도 평생에 걸친 수입의 차이가 절반은 능력이나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학업중단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황창순, 1996).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분석을 한 실증적 연구들(장석민 외, 1989; 송광성 외, 1992)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노동 시장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으며, 취업을 했더라도 수입이 적거나 비기술직일 것이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 등이 열악하고,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전문성, 비지속성, 낮은 임금수준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내의 청소년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에 관한 여러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은 잘 입증되고 있다(인권운동사랑방, 2002;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2002; 서울 YWCA 청소년 진학상담실, 2000; 서울시실업대책위원회, 2000; 이철위 외, 2002)

그리고 전경숙(2006)의 연구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 다닌 일의 경험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단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각종 배달, 막노동, 상점 판매, 유흥업소, 등 직종이 한정된 심한 ‘비대칭성’을 띠고 있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이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은 개인적 차원에서 장래 진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에게 교육 기회의 박탈을 의미하고, 학교로부터 일의 세계로의 전이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학업중단청소년이 건전하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업중단자가 사회 부적응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박창남, 2001). 또한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출이나 범죄와 연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진로 조력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일탈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일탈을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한준상, 1997). 진로조력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원동력으로써, 또한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벗어나 적절한 다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많은 선행 연구들(정일동, 1997; 최선미, 1998)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서 진로조력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조력 또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과 그들이 도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결정 및 준비를 돕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 및 조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방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맥락을 중요시한다. 구성원들은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잡한 현실을 구성해 나간다. 각 개인은 서로 처하게 되는 여건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전과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경험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파악하여 진로조력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센터에 의뢰된 학업중단 청소년 중 9명이다.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시 고려한 사항으로는 첫째, 장기 무단결석, 자퇴 혹은 제적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15~20세의 청소년으로 학교를 다닌다면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대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회기관에 속해 있기 보다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며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선정하였다. 셋째, 진학지향형인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해 현재 검정고시, 복학을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넷째, 한 번의 면접으로 끝내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번의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학업중단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예비 면접은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연구자가 택한 주제가 면접 자료를 통해 분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했으므로, 대상 면접자들이 학교 중퇴과정, 그 이후의 생활과 그들의 놓여있는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과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 참여의사에 따라서 총 9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각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회기 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고 한 사례당 평균 3~4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Ⅲ-1>와 같다.

<표Ⅲ-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 번호 | 연령·성별  | 중단시기              | 가족관계  | 중단이유                | 현재  |
|----|--------|-------------------|---|---------------------|---|
| A  | 19세, 여 | 17세 5월<br>(일반계고1) | 부, 모,<br>언니1(대학 3년)<br>언니2(대학 2년)                     | 집단따돌림               | · 고등학력졸업학력<br>검정고시 준비<br>· 아르바이트(PC방)         |
| B  | 19세, 남 | 18세 5월<br>(전문계고2) | 부, 모,<br>형(대2년)                                       | 무단장기결석              | · 고등학력졸업학력<br>검정고시 준비                         |
| C  | 16세, 남 | 14세 3월<br>(중1)    | 부, 모,<br>남동생(초5)                                      | 신체적문제<br>(아토피)      | · 고등학교입학자격<br>검정고시준비,<br>· ○○학교<br>(비정규 야간학교) |
| D  | 16세, 남 | 14세 3월<br>(중1)    | 부, 모,<br>누나(대학1년)                                     | 신체적문제<br>(사구체신염)    | · 고등학력졸업학력<br>검정고시준비,<br>· ○○학교<br>(비정규 야간학교) |
| E  | 17세, 여 | 15세 9월<br>(중2)    | 부, 모,<br>남동생(중2)                                      | 전학문제로 인한<br>부모와의 갈등 | · 고등학력졸업학력<br>검정고시준비중                         |
| F  | 20세, 남 | 19세 5월<br>(전문계고3) | 부, 누나<br>모는 이혼했으나<br>연락을 자주 함                         | 무단장기결석,<br>가출       | · 복학준비중<br>· 레스토랑 서빙                          |
| G  | 20세, 남 | 19세 5월<br>(전문계고3) | 부, 모,<br>형(군인)  | 문단장기결석              | · 복학준비중<br>· 킥서비스                             |
| H  | 16세, 여 | 15세 5월<br>(중2)    | 부,모,<br>여동생(초5)                                       | 무단장기결석,<br>가출       | · 복학준비중                                       |
| I  | 19세, 여 | 16세 5월<br>(중3)    | 부,<br>여동생1(18세,중2<br>중단), 여동생(초6)<br>모는 이혼 후 연락<br>두절 | 무단장기결석,<br>가출       | · 복학준비중<br>· 고깃집 서빙                           |

※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A는 일반계고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된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생활이 무척 힘들었으며 단 한명의 친구만 있었어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따돌림에 대해 담임 교사와 상담을 했지만 지켜만 보겠다는 교사의 무책임한 대답만 있었다. 결국 A는 집단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B는 전문계고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자동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집단 실습방식과 실습시간이 적은 것이 불만족스러웠고 특히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잦은 지각과 무단결석으로 시작된 교사의 체벌은 가벼운 체벌에서 시작하여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 친구들 앞에서의 폭행은 물론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그만되라”, “친구들에게 방해 된다.” 라는 폭언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분노가 커졌고 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학업중단 후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현재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C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토피가 생겼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 수업일수를 겨우 채울 정도였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와 짓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 몸이 좋을 때만 겨우 학교를 갔지만 또래들은 C의 얼굴부터 온 몸에 난 아토피상처를 놀리며 집단따돌림을 했다. 담임교사에게 일기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자 했으나 의무적인 교사의 답변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을 했던 상황을 이야기 해 주었다. 이처럼 C는 아토피로 인해 신체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주변사람들의 시선과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또한 스스로 ‘나는 왜 태어난 거지?’라며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도 많이 했다고 한다. 현재 ○○학교(비정규 야간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D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했다. 어려서부터 사구체신염을 앓아 뛰거나 하는 신체적인 활동도 못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등 거의 병원에서만



생활을 했다. 그러다보니 학교를 1년 쉬게 되었다. 재학 중 또래관계는 무난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또래친구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반에서 욕설과 시비를 자주 받게 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나온 친구들의 욕설로 부모님이 상황을 아시게 되었고 건강상의 문제와 따돌림으로 인해 부모님이 검정고시를 제안하게 되었고 D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현재 ○○학교(비정규 야간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E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E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주로 전학을 왔다. 평소 성격이 조용하고 소극적인 편이라 특별히 튀는 것 없이 무난한 학교생활을 했었다고 한다. 친한 친구는 2~3명 정도 어울릴 정도였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 끝나갈 쯤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서울 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 할머니와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서울의 높은 학업 수준은 학교적응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잦은 결석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으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었고 부모와 학교입학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다 시간이 흘러 자동으로 유예되었다. 현재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F는 전문계고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F는 학교생활은 무척 재미있고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무척 좋았었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교악대 활동도 하는 등 무척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문계 과목 수업시간에는 친구들을 조용히 시킬 정도로 인문계과목 학습에 열성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중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전문계고의 수업방식은 F에게 잘 맞지 않았다. 특히 3학년이 되어 실습 수업일수가 늘어났고 실습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불만이 많고 싫었다고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서울로 놀러간 것이 계기가 되어 무단장기결석이 길어지게 되었지만 학교에서 제적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자퇴처리가 되어버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현재 레스토랑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학준비를 하고 있다.

G는 전문계고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G는 형과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를 잘 다녔다고 했다. 2학년 때는 학교 간부를 맡고 있어서 늦은 시간이라도 등교를 했지만 수업은 지루하고 따라가기 힘들었다. 전자과 실습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학교에서는 거의 잠을 잤었다고 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잠이 많아지고 모두 것이 귀찮고 피곤해지며 무단결석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사로부터 “인생 실패자”, “평생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학교는 안 다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학교를 충동적으로 그만두었다. 하지만 다시 후회를 하게 되었고 현재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학준비를 하고 있다.

H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H는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와 정신지체 어머니, 지능이 조금 낮은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다.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라 학교생활은 즐겁게 지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잦은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를 했었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잦은 가출로 학교에서 유예되었다. 가출시 차를 털거나,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팔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현재 보호관찰을 받으며 복학준비를 하고 있다.

I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I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사와는 사이가 좋았으나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고 지루했었다고 했다. 학교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 가출을 하기 시작했고, 엄마와의 사이가 안 좋아져 더욱 가출을 자주 하게 되었다. 잦은 가출로 학교에서 유예되어 다음해에 다시 복학을 했지만 학교적응이 어려워 다시 유예되었다. 현재 19세지만 중학교 졸업장은 필요할 것 같이라며 다시 복학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학준비를 하고 있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있는 그대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3~4회 진행되었고, 자료 수집 도구는 녹음기 1대와 필기 등을 활용하였다. 원자료는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그대로 필사하였고, 전화 면접 내용이나 녹음이 불가능한 추가 면접 내용의 경우 면접 직후 바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 연구 참여자들과의 메일교환, 관련된 기사 수집 등의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예비조사와 초기 면담을 해 본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과정과 자신이 경험한 진로장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었지만 진로장벽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주제 영역을 설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 질문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이 필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알아보기 위해 김은영(2001)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 김지혜(2008)가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면접용 카드를 활용하였고 반구조화된 면접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맞춰 질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Ⅲ-2> 면접용 카드

| 면접흐름       | 주요질문내용  |
|------------|---|
| 소개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련 내용 소개</li> <li>√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및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li> </ul>  |
| ▽          |   |
| 사회적/개인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li> <li>√ 가족배경 등 기본적 사항</li> </ul>   |
| ▽          |   |
| 학업중단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중단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주세요</li> <li>√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li> <li>√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중단한 기간과 그에 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li> <li>√ 학교를 중단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주세요</li> </ul>  |
| ▽        |  |
| 진로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및 진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li> <li>√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li> <li>√ 학업중단 이후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li> <li>√ 학업중단 이후 진로 및 진학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이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li> <li>√ 학업중단 이후 진로 및 진학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li> <li>√ 진로 및 진학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li> <li>√ 다른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진로 및 진학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li> </ul> |
| ▽        |  |
| 면접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들</li> <li>√ 면접 경험에 대한 논의</li> <li>√ 면접 질문이나 내용에 대한 제안</li> <li>√ 추후 면접에 대한 동의 및 협의</li> </ul>   |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의 자료 분석은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자료의 영역 분석(domain analysis)단계이다(Spradley, 1980). 연구자는 면접 전사기록을 몇 차례 정독하면서, 자료의 내용 중에서 학문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만한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제목을 면담 기록의 해석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연구주체의 영역을 찾았다. 이때 보충해야 할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메모하여 누락된 정보는 다음면접에서 보완되도록 하거나, 전화면접을 통하여 보충하였다.

두 번째는 자료의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단계이다(Spradley, 1980). 연구자는 자료의 분류체계(coding system)를 작성하였다. 자료의 분류체계는 분석의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부여된 면접내용의 소제목에 포괄하는 중간 분류 제목을 찾고, 다시 중간 제목을 포괄하는 대분류 제목을 찾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정독하고 대강의 분류체계를 작성한 다음, 자료의 수집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자료의 분류체계를 몇 차례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삼각검증은 질적연구의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영천, 2006).

타당도 작업은 연구자가 도출한 결론이 과연 연구하려고 한 내용을 정말로 연구하였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김영천, 2010:165). 또한,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이용숙 외, 2006; 제프리 E. 밀스, 2007; 김영천, 2010), 새롭고 진보적인 타당도 작업의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를 구분해야 하는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장치로서 Lincoln과 Guba(1985, 이용숙외 5인, 2006:39, 재인용)가 제시한 신뢰도 준거가 일반적인데, 제시한 신뢰도 준거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연구자가 직면한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이들이 제시한 것 중 ‘삼각검증’이라는 준거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삼각검증(triangulation)’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가지 방법의 사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연구 자료 해석의 결점과 판단오류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전문가 2인과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미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밟았다.

## IV. 연구결과

연구 결과의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학업중단 원인, 학업중단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보아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연구 참여자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통해서 학업중단 이후에 경험한 진로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력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 1. 학업중단의 원인과 배경

#### 1)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의 원인은 각 사례마다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원인들이 복합적, 순차적으로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본 결과, 각각 원인들이 다양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적요인 즉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사례 A: 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간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이렇게 똑같이 왕따를 시켰거든요. 왕따 시켰던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좁은 범위, 중학교 때는 좀 더 넓은 범위, 고등학교 때는 좀 더 확장된 범위 그래서요 점심때 여자애들은 막 몰려서 점심 먹고 화장실도 몰려서 가잖아요. 저는 반에서 유일하게 저만 왕따였거든요. 반 애들이 저랑 안 놀아 줬어요. 못 놀게 했었어요. 반장이...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서 맨날 줄줄 굶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화장실가면 내 뒷담화 들을게 뻔하고, 그래서 학교 가는게 싫었어요.”

A는 “학교 가는게 정말 싫다” 라고 할 정도로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된 왕따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왕따를 시키던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A를 괴롭혔다. 왕따를 주동한 친구로 인해 학교에서는 다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었고 늘 외톨이로 지내야 했다. Dusek(1991)는 또래로부터의 경험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또래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단 한명의 친구만 있었어도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A에게 또래관계 어려움은 학교생활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야기하며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였다.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 아이가 날 자꾸 왕따 시킨다, 그래서 밥도 혼자 먹고 화장실도 혼자 간다,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싫다.」 담임 선생님이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남자였는데 자기가 여자애들 싸움에 관여하게 된다면 내 처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보겠다, 너가 생활을 조금만 바꿔보면 개네도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2개월 3개월 후에 그것도 못 버티 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담임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만 생각만 하다가 제가 못 버티고 나와 버린 거예요, ”

A는 담임교사와 친구들 관계의 따돌림 문제를 의논했지만 교사는 상황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고 오히려 A에게 태도를 바꿔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교사와 상담한 상황이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지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어버렸다. 전문적인 상담의 부재로 A는 따돌림 상황을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었다. 결국 A는 또래들의 집단 따돌림, 교사의 무관심과 같은 학교 요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소외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같은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례 B: 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수업은 재미없었어요, 자동차과 갔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고 실습을 3학년, 2학년 때부터 하나? 쪽 실습만 하는게 아니라 수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 그냥 실습만 하는 것 (원했어요), 1학년 때는 실습 안 해요 2학년 때도 거의 하나마나,, 1주일에 한번,,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중간생략] 기대한 만큼 재미없었죠, (실습은) 그니까 하나 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나하나씩 줘서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중간생략] 수업도 3시간인데 하는건 한 30분... 다 놀아요 그냥,, 그니까요 딱 뭐 하나를 줘서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고 짧게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

B는 자동차과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많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과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그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실습시간에 하나의 부속품을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실습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B는 체계적이지 못한 실습방식에 점점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

"학교 다닐 때요? 다니나마나 그저 그랬는데,, 그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안가고 싶으면 안가고,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후반 되니까 가기 귀찮아지고, 버스 두 번 갈아타고 가는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서 한 10시 11시 점심시간 지나면 안가요, 가기 싫을 때도 있고"



B는 학업과 교과에 대한 흥미 상실로 점점 학교를 갈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잦은 결석을 하게 되었다. 특히 버스로 통학을 하고 두 번 갈아타야 하는 B는 등교길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더욱 더 학교를 다니기 귀찮게 만들었다.

“(선생님은) 맨날 때려요, 많이 맞아봤는데, 손으로 아무데나... 얼굴은 말고 그때 막 처음에 맞은게 구두로 있잖아요, 구두로 막 발 같은데 막 이렇게 차고 [중간생략] 선생님 때문에 안 갔어요, 만나기 싫어서... “친구들에게 방해 된다” ,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 선생님이 진짜 싫었죠, 보기도 싫었어요, [중간생략] 아... 학교가면 선생님이 맨날 때리고 뭐라고 하니까, 아 이럴거면 가지말자, 이러면서 안갔죠,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니까, 무릎 꿇은 다음에 완전 발로 밟혀봤어요, 그냥 무릎 꿇은다음에 그냥 막 때리고 발로 이렇게 차고, 어쩔 때는 몽둥이 갖고 때리고... 그 선생님한테 많이 맞은게 한 30대인가? 또 학생 다 보는 앞에서 때리니까, 교실 한가운데서,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나만 더 그렇게 맞고 그러니까 [중간생략]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했었어요, 이럴 거면 학교 다니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안 나올 거면 [중간생략] 그냥 뭐라 안 했으면 잘 갔겠죠, 계속 뭐라고 하니까 갈 때마다.. 다른 아이들 피해준다고 ...”

또한 교사와의 갈등은 그의 학업중단을 더욱 부추기게 만들었다. “선생님이 진짜 싫었죠” 라고 하는 그는 교사의 무차별적인 체벌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으며 이런 교사의 차별대우와 훈육방식은 학교생활의 불만을 가중하며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소속감 상실을 야기하게 되었다. B는 단지 교사가 “다음부터는 잘 다녀라”라는 자그마한 관심이라도 있었으면 학교를 잘 다녔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B가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원했음을 의미한다.

“그때부터 알바를 했을걸요, 2학년 다니기 전 겨울방학부터, 그 피자집, 처음에는 겨울방학이니까 하루 종일 하다가 개학하고 학교 끝나서 하다가 학교가기 싫으면 가서 일하고, 내가 살 수 있는거 사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샀어요, 거의 120만원, 한 달 알바 한 것 다 쏟아 넣었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별로……, 돈도 없고 산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다시 팔고, 계속 그렇게 오토바이 사면 며칠 있다 팔고 [중간생략] 돈 버는 게 좋았어요, 알바 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학교 가는 것보다, 네……, 그냥 새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것도 배우고 처음에는 배달하다가 나중에는 피자 만들었어요, 배달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B의 재미없고 따분한 학교생활과 공부를 대체해준 것은 피자집 아르바이트였다. 아르바이트해서 생긴 용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사고, 피자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흥미와 즐거움을 주었다. 점점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학교에 늦거나 무단으로 결석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학교를 가지 않기도 했다. 이처럼 B는 과에 대한 흥미상실과 담임교사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체벌로 인해 점점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던 중 그 돌파구로 아르바이트를 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B는 학교공부의 지루함, 교사와의 갈등, 장기 무단결석 등의 학교요인과 가출, 각종 유해환경의 접촉 등의 사회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소외감, 좌절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부적응과 같은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례 C: 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중학교 구경도 못 갔죠, (아토피) 너무 심해 가지고, 걷지도 못 했어요, 그때는 병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의 초등학교는 졸업할 정도로만 다니고요 [중간생략] 거의 조퇴하고……, 뭐랄까 얼굴은 말 못할 지경이었고요, 얼굴 전체가 이정도였구요, 정도고 몸은 팔을 못 펼정도, 팔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접혀진 상태) 허벅지도 막 심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전신이 그랬다고 보시면 되요, 전신적으로, 아파서 못 걸었죠, 신체적인 부담도 있었고, 좀 낫다 싶으면 다녔어요, [중간생략] 이 얼굴 때문에 밖에 가서 눈초리 받고 가장 큰 게 99%가 그거이고요”

C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토피가 발발했다. 얼굴과 온 몸에 난 아토피

상처와 짓물은 C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학교로 등교를 했지만 주변에서 부딪치는 친구, 교사, 주변사람들의 눈초리는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 때는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애들도 거의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고, 나 혼자 듣고, 놀고, 밥 먹고 하다시피 했어요. 자기 의지로 다가오는 애는 없었죠, 선생님이 뭐 좀 해줘라 하면 다가왔죠. 언제 한번 따돌림이 있었어요. 너 얼굴 왜 그러냐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너 얼굴 왜 그러냐고 제대로 놀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요, 어려서 그런지 서운한 많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울었죠, 너무 서운해서 왜 우나 싶을 정도로 생각 하면서도…….”

C는 급작스럽게 아픈 자신의 몸을 감당하기도 힘든데다 특히 또래 친구들에게 “너 얼굴 왜 그래?”, “건들지 마.” 라는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담임교사가 있을 때만 잘해주는 친구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는 한명도 없었다고 이야기 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자신을 탓하게 되었고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마음의 문을 닫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많이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했지만은 그리 깊게는 못해줬어요. 선생님도 다시 꺼렸는지……, [중간생략] 뭐랄까? 자주 대화도 안 걸어주시고 못 거신 듯 하다 하고 업무도 있으시고... 그렇게 깊게 선생님의 의무만 다할 뿐 인간적으론 못했고, 선생으로서의 의무만... 제 기준으로는 잘 해준다는 것, 무엇보다도 관심이 잘 없었어요. 관심이, 관심이 없다는게 결정적이었구요. [중간생략] 일기장에는 그 때 있었던 일을 쓰지만요 가끔 속풀이로 가끔 그때 마음을 쓰거든요, 우울했거나 그런 거, 그런데 그것을 뭐랄까 음... 의무적인 교사로서 의무적인 대답 있잖아요, 잘 봤다 라든가 대충 답을 적어주는 거 그런 것에 많이 실망했어요.”

C는 이런 자신의 힘든 마음을 담임교사와 나누며 의지하고 싶었지만, 담임교사의

무관심과 의무적인 태도에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힘들어 하는 부모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할 수도 없었던 그는 학교에서의 소외됨과 신체적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아토피 증세가 호전이 되지 않자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C는 신체적 질병과 또래와의 친밀감 부족, 교사의 무관심 등의 학교요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소외감, 학교부적응과 같은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례 D: 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중학교 입학 안 했으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병명:사구체신염) 뛰거나 막 이런거 하면은..(힘들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생활하면서 많이 불편하기도 했죠, 뭐 어쩔 수 없었죠, 어,, 약 먹었을 때 부작용 같은거 이렇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학교생활은) 뭐 그냥 즐겁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죠, 뛰어다니지 못하고 음식도 잘 먹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는 거의 병원에 있었죠, 사실 저는 학교도 1년 쉬었었어요, (또래보다 한 학년 애들과 동기가 되는 것) 그것도 그렇고 불편한거 좀 답답했죠, 거의 병원에서만 생활하니까..."

D는 선천적으로 신장이 좋지 않아 사구체신염이라는 병을 앓았다.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지내며 투병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는 이로 인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항상 신체적인 제약과 약물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다툼을 했었던 친구가 .. 그 친구가 욕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화난다고 그러기보다는 요즘 애들... 뭐 쉬도 때도 없이 욕하고 그러죠 뭐,, 싸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사소한 다툼이었었는데 [중간생략] 3년 동안 그런다면 (집단 따돌림) 쉽지 않겠죠, 친구들에게 6학년 때처럼 욕 듣고 그리고, pc방 하나 진짜 제대로 못가고 여기 왜 왔냐고 애들이 시비 털기(시비걸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밖에서도 그렇고.."

D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소한 말싸움이 계기가 되어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된 그는 만약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했으면 지속적인 따돌림을 받았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표현했다. 이처럼 친구관계는 학교에서의 적응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친구들의 정서적인 지지관계는 무척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주기보다는 제 스스로 (상황을 극복) 해야죠, 요즘 선생님들이 다 그렇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집단따돌림 후) 처음에는 불러내서 화해하라고 그 다음에는 딱히... 알아서... 선생님이 (가해자) 불러내서 혼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그 애가 저에게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난 그냥 그다음부터 조용히 지내고...”

학교에서 D의 따돌림 상황을 알고 조치를 취해주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화해하도록 시킨 것 뿐 이었고, 그 후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교사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감을 볼 수 있었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따돌림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도와주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D는 신체적 질병과 또래들의 집단 따돌림, 교사의 무관심 등의 학교요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소외감 같은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례 E: 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서울에서 초4때 제주도로 전학 온 뒤 다시 중2때 서울로 전학 감, 학업중단 후 현재 제주에 있음] “그냥 철없을 때라고 하기는 웃긴데 그냥 하루 이틀 빼먹다 보니깐 ...그때(서울로 전학한 후)는 여기처럼 평범했어요, (초등학교)1학년 때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은 좋았었죠, (서울 중학교로 전학 갔는데)같은 반 된 애가 없었어요, 같은 반에 친구 그리고 옛날에 친했던 애라 하더라도 다 까먹고 워낙 어렸을 때니까... 아무래도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친한게,, 아무래도,, [중간생략]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가가지고 더 막 어렵고 그래서 더 정신없었어요, 그때 수학

같은 것은 아예 손을 놓아버리고...중1때는 중상 수준,, 2학년 때는 거기 기준으로 하면 완전 하,, 그냥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해야지 하고 막 이랬는데 점점 작심삼일이라고 점점 안하게 되었죠, 그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그냥 주위 통제할 사람들도 없고 그냥 막연히 놓고 싶은...

E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제주도로 전학을 왔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심해진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은 서울생활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커지게 만들었고 결국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전학을 간 서울에서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특히 수준이 올라간 학교수업과 성적위주의 교육과, 경쟁의식은 E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학습 진도는 나날이 뒤처지게 되었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던 E는 점점 결석이 많아지게 되었다.

"중2때 (서울로 전학)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다니다가 학교 빼먹고 안가고 그래서 엄마가 되게 화나서 그냥 여기서 (제주에서 학교 다녀라.) 저는 다시 서울 올려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니라고 해서 자꾸 말다툼하다가 그만 뒀죠, 유예기간도 지나고...[중간생략] 엄마랑 합의점을.. 합의가 안 되어서"

결국 E의 결석이 많아지게 되어 제주도에 계시는 부모님도 알게 되었고 E는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다.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원했지만 자꾸 지역을 바꾸며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던 E는 육지로 갈 것을 희망했고 부모와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학업일수 미달로 자동 유예되어 학업이 중단되었다. E는 입시 및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또래와의 친밀감 부족 등의 학교요인과 부모의 잦은 싸움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절 등의 가정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례 F: 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지금 (자동차)과가 안 맞았어요, 실습만 하니깐, 실업계니까, 2학년 때는 인문계

과목도 공부했는데 3학년이 되니깐 계속 몸 쓰니까,  
실습하는건 맞지 않았어요, 전부 하기 싫었어요, 기계를 만지는게,, 하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싫었어요,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되니깐 실업계를 가잖아요,  
3학년 때는 전부다 실습을 하잖아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실습할 사람은  
자격증 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선생님이 물어보고...”

F는 전문계고 진학 후 이루어지는 실습 교과목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힘들어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아 전문계고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F는 직업  
기술교육에 대한 일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교사들의 세심한 진학상담이  
필요했었다고 했다.

“놀고 싶다. 학교 그만들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놀다보니깐 유혹에  
의해 나쁜 일로 빠져서 그런거지...[중간생략] (서울에서 놀다가)내려왔는데 짤렸어요,  
안 짤린 줄 알고 학교 다시 다닐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짤렸어요,  
간발의 차이로 (학교)짤렸어요.”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F는 주기적으로 학교를 결석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단지 주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가출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학업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F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기조망능력이 부족했고 충동적인 자신의 행동에 더욱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F는 학과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고 주변 유혹을 통해 일시적 해방감과  
즐거움을 누리다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즉 학교요인과 사회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례 G: 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킥서비스>

“(전자과)과는 안 맞아요, 이상한 회로 막 그림 좇나(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만들라고 해요, 동판 막 준 다음에 거기다 막 납땀하고 다 하라고 해요,, 대가리(머리) 아파서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중간생략] 토 나오려고 해요, 가서 냄새 맡아봐요, 대가리(머리) 아파서 죽어요, "

G는 전자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학습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아 실습시간은 그에게 단지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 수업시간에 듣기만 할 뿐 아는 것이 없어 실습을 할 수 없었던 힘든 시간이라고 했다. 또한 전자과 특성상 전기를 이용한 작업이 많았는데 실습실 환경이 좋지 않아 환기도 되지 않은 공간은 어지럼증과 구토를 유발하여 힘들었다고 했다.

"지각 & 결석, 학교 한 번 재끼면(안가면) 학교가기 실패져요(귀찮아요), 그럼 한번 재끼고(안가고) 하다보면 한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쪽 안 가는거지 [중간생략] 졸려서... 학교 다니기 실패부난(귀찮아서).. 아침에 일어나기 실패부난(귀찮아서).. 잤다 일어나면 시간 지나버려 있는데... [중간생략] 맨날 지각하고, 벌 받고, 수업 들어가고 잤다, 애들 놀면 같이 놀고, 밥 먹다 다시 수업 들어가 놀거나 자고, 만약 잤으면... 잤다가 눈뜨면 가는 시간.. 2학년 때는 간부여서.. 간부, 어찌구 저찌고 차장이어신디 그것 때문에 학교 맨날 (매일) 12시에 출근(등교)했어요, 맨날 12시에 출근했다가 있다가 가고 경해신디 (그랬는데).. 3학년 딱 되니까 귀찮은거..."

이렇게 G는 학업에 대해 점점 흥미를 잃어가며 잦은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는 간부라는 직책이 있어 학교를 늦게라도 갔었다고 한다. 이러한 간부직은 G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소속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이처럼 소속감은 학교를 다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한 애착을 일으키고 학교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G에 대해 교사들은 무관심으로 방치했고, 이는 점점 학교를 다녀서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닌 단지 시간을 허비하며 잠을 자는 곳, 밥을 먹는 곳으로 생각되어 학교를 다닐 필요성조차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Finn(1993)이나 Wehlage 등(1989)이 학업중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장하는 ‘학교 소속감’과 ‘교육참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연구처럼 자신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학교로부터 지속적으로 밀려나게 되며, 이 밀어내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2학년 때는 (담임교사) 와!~ 별로... 2학년때부터는 짜증나, 하여튼 짜나게 (짜증나게) 해요, 그니까 우리(학생들)가 이걸 못하면... 그냥 막 뭐라고 했지? 너네는 인생의 실패자, 뭐 어찌고 저찌고 그만(그런) 말 막 지껄이던데 좃나 (진짜) 짜증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평생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런 말.. 좃나 짜증나, 2학년 때부터는 (담임의 폭언 때문에 학교생활이) 짜증나... [중간생략] 학교에서는 박 벌 받았어요, 오리걸음으로 막 이상한데 계속 돌게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넘게 시키고.. 하루에.....”

짖은 지각으로 인해 교사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인생의 실패자”라는 교사의 폭언과 지나친 체벌은 교사에 대한 원망과 학교에 대한 분노로 G를 가득 차게 했다. 담임교사 하면 생각하기도 싫고 짜증난다며 몸서리치는 G는 학교생활 중 특히 교사와의 갈등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1학년 때는 교사와 장난도 치며 관계가 좋았지만 2학년 때의 교사의 지나친 엄격함은 오히려 G의 분노와 반항심만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다.

“아, 3학년 되니까... 그때 일 하고 있었다, 일도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막 귀찮은거... 학교 안가고 그냥... 2학년 때도 아르바이트 했죠, 그때 방학 때 하고, 평일날 가끔 [중간생략] 그냥 다니기가 실편(귀찮아서), 그니까(그러니까) 잠이 많아서, 눈뜨기가 실편, 그냥 졸려서.. 피곤해서 그냥... 그런 것도 있고(일해서) [중간생략] 돈 어시니까(없으니까), 느껴요 많이 느껴요, 돈 어시믄(없으면) 절대 못 살아, 그냥 놀 때도 돈쓰고, 놀다보면 집에 갈 택시비, 작년만 해도 택시비 쓴 것만 해도.. (같이 어울리는) 애들이 다 일하니까 (만나면) 막차 다 끊길 시간, [중간생략] 내 사생활을 즐겨야 되니까, 사생활을 즐겨야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일을 하는거지”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G의 학교생활은 2학년 때 잠시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바뀌게 되었다. 오토바이를 좋아했던 G는 “오토바이는 짤어요”라고 할 정도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일석이조의 조건이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로 유흥생활을 즐기게 되며 점점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악순환이 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G의 학업중단에는 학교공부의 지루함, 교사와의 갈등, 장기 무단결석 등의 학교요인과 가출, 각종 유해환경의 접촉, 부모의 관심 부족, 경제적 빈곤 등의 가정요인과 가출, 각종 유해환경의 접촉 등의 사회요인이 복합적으로 학교에서의 소외감, 부정적 태도, 학교부적응과 같은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례 H: 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집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가출한 거예요, (알콜 중독 아버지의 폭력) 1학년 때 보다 2학년 때가 더 심해지니까 견디기 힘들어서 [중간생략]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양이) 보통정도면 2병이고 조금 많다 싶을 정도는 3병... 3병 먹었을 때가 딱 제일 많이 때려요, [중간생략] 일주일 7일에 4번 정도,,, 때린다고 해서 맨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해 봤자 또,, 그러니까 너무 심할 때만 . (신고)하고 매번... [중간생략] 2학년 입학식 하기 전에 그때 나가서(가출)... 그때 나가서 입학식에 안 갔을걸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한 달? 20일정도? 나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잡혀서 들어왔거든요, 잡혀서 들어왔다가 그냥 그날도 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니까 또 때릴까봐 그냥 바로 나와 버렸거든요.”

H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알콜중독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해 왔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어 점점 심해지는 아버지의 폭력은 견디기 힘들었고 같은 고민을 갖게 된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출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절도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잡혀 현재 보호감찰 대상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 H는 밝은 성격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으나 술에 취해 학교로 오는 아버지로 인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폭력은 H를 점점 힘들게 하여 결국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업이 유예되게 되었다. H는 가정 내의 폭력, 경제적 빈곤, 부모의 관심과 교육적 자원 부족 등의 가정요인과 가출, 절도 등의 사회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례 I: 여-19세, 중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

“엄마는 싸워서 저랑 사이 안 좋아서,, 몰라요 갑자기 사이 안 좋아졌는데 계속 계속 싸우다가 내가 엄마한테 “ 나가 ” 이래서 (현재 엄마와 연락 안 됨) 나갔어요,, 중2때쯤... (엄마가) 그냥 싫었어요,, 대개 싫었어요, 갑자기 싸우면서 싫어졌어요, 별 이유 없이 싸웠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싫었어요, 원래부터 싫어해요, 진짜 싫어요, 지금도 (엄마가) 온다고 하면 마다할거예요, [중간생략] 처음에 가출하다가 중 3때,, 처음에 그냥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학교도 가야 되고 집도 가야 되고 귀찮고,, 애들이랑 밤새 놀고 싶고 그래서 가출 했어요, [중간생략] 친한 아이랑 원래 안 친했던 애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가출한 거죠, 놀려고,, 학교 안가도 되고, 또 밤늦게까지 놀 수 있고 ,,노래방 가고, 그냥,, 놀러도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그냥 막 애들이랑 어울리는게 좋아서,, 원래 학교 다니면 밤에도 못 돌아다니고 외박도 못하고 근데 음... 학교 그만두면 마음껏 놀 수 있잖아요.”

I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2학년 겨울방학 때 동생 소개로 알게 된 오빠들과의 만남은 점점 늦은 귀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엄마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I는 엄마의 간섭이 싫어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 점점 심해지는 I의 행동에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했고, 그 뒤로 I는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은 와해되고 아버지와의 갈등마저 점점 깊어지게 된 I는 결국 가출을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I의 경우 어머니와의 갈등, 가족 와해, 친구들과의 유흥문화와 비행청소년들과의 교류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파악되며 가정요인과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중단에는 또래들의 집단 따돌림, 교사의 무관심, 교사와의 갈등 학교공부의 지루함, 입시 및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장기 무단결석 등의 학교요인과 부모의 잦은 싸움,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절, 부모의 무관심, 경제적 빈곤, 가정 내의 폭력 등의 가정요인 그리고 비행청소년들과의 교류, 각종 유해문화 및 유해환경의 접촉, 가출 등의 사회요인 등 여러 요인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A, B, C, D, E, F, G처럼 특히 학교요인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생활 적응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중단은 전 생애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청소년 본인과 주위 환경 즉, 부모 및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다.

“다 궁금해 했어요. (왕따 시킨 애들, 다른 학교 애들) 뭐 하러 학교 그만뒀냐면서 다 그것만 궁금해 했어요. 제가 왜 학교를 그만뒀는지 뭘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었는지 그 이유는 궁금해 하지 않고,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 자퇴 했는지만 궁금해 했어요. [중간생략] 혼자 읽다가 그만두고 언니에게 이야기 하니깐 언니는 차라리 잘 했다. 검정고시 보고 네가 원하는 대학교 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학교 그만둔 것을 잘했다고만 이야기 했어요. [중간생략] 친척들은 몰라요 아무도. [중간생략] 엄마가 이야기 하지 말래요, 내가 잘못된 거니깐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PC방 아르바이트)

A는 친구들의 관심어린 시선이 불편하기만 했다. 자신의 힘든 점을 이해해주기 보다는 학업을 중단한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며 궁금해 하는 상황이 싫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A의 힘든 점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A의 학업중단 결심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주변을 인식하는 부모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라하며 이를 숨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A에게 자신의 학업중단 결심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위축감을 갖게 했다.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꼭 졸업하라고,, 내가 연락도 안 받고 안 가고 그랬어요, [중간생략] 친척들이 안 좋게 봐요, 그니까 엄마, 아빠도 나 학교 안 다니는거 막 그렇게 쪽팔려하고, [중간생략]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 치고 [중간생략] 친척들 만나면 거의 숨고”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가족들은 B의 학업중단에 부정적이었고, 주변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B에게 학교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 B는 주변사람들이 모르게 길거리에서 숨어 다녀야 했고, 부모님의 지속된 부정적인 피드백에 집을 나와 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형이 공부를 잘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E의 학업중단은 가족에게는 창피스러운 일이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는 B가 학업중단 후 가족과의 관계 단절, 소외감을 부추겼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약화되어 진로에 대한 탐색의지를 저하시켰다.

“다들 당연하다시피 했어요, 내 이것(아토피) 때문에 다들 당연하다시피,,전부 뭐라고 안하고,,나한테 복돋아 줄 뿐이죠, 힘내라고 그럴 뿐이죠, 딱히 뭐라 나무라진 않았어요, 힘내라고 건강하라고...”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C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중단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고 주변의 격려와 지지를 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C 본인은 학교를 못 간다는 생각에 한동안

쉽습하고 허무한 느낌이 들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변의 지지와 격려는 학업중단 이후 C의 생활에 긍정적인 지지원으로 자리 잡았고, 진로탐색에 대한 정보와 조력을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다.

“엄마랑 아빠랑 검정고시 보는게 어떻겠냐고 했고 [중간생략] 졸업하기 전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제 건강도 그렇고 체육시간, 조회 이런 거 중학교 가면 학교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깐,, 친척들이 좀 많이 친구들도 사귀어야 한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것밖에는,, 저는 검정고시 보는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D는 부모님의 검정고시 제안에 학업중단을 생각하게 되었고 따돌림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D는 검정고시를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학업중단 후 사회성과 폭넓은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따돌림으로 힘들었던 D에게는 그런 염려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 D도 가족 간의 의사결정을 통해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학업중단에 부정적인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가족들은 이제 그때 결국 자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포기하는 심정... 엄마랑은 계속 틀어졌죠... 계속 싸우고,, 그때 결국 기간 다 유예기간 다 지나니까 그냥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계속 여기(제주) 학교 다니라고 그런 얘기만,,너 그대로 두면 또 계속 학교 빠질거 아니냐, 그때 전 할 말 없죠... 아바도 술 먹고 와서 몇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엄마에 비해선 뭐라고 안하셨어요, 그냥 아바도 다녀야된다고만,, (부모님이)원체 서로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아요, 이모, 이모부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E는 서울로 전학 간 후 자신의 태도(잘못된 결석)에 대해 반성하며 믿어줄 것을 원했지만 “못 믿어주는” 부모님의 태도에 점점 반항심만 생겼고 서로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았던 E와 부모님은 결국 유예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학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그 후에도 의견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무관심은 지속되었고 E는 자신의 태도가 믿음을 주지 못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지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친척들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지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학업중단의 결정은 혼자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으로 자리 잡았다.

“부모님들은 화냈죠, 걱정했죠, 다시 다니래요, 학교 다니는게 좋은 거라고... 다닐 수 있을 때(학교 다니라고) 왜 그만 두냐고 친구들이 ,, 사촌들도 그렇고,, 누나 완전 화났어요, 욕하면서 다시 (학교)다니래요.”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F는 학업을 중단하고 나서 주변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다. F 또한 가출해서 놀다보니 학업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인정했고 자신이 학교를 중단한 것은 잘못했고 주변사람들에게 미안했었다고 한다.

이처럼 F는 유혹에 휩쓸린 자신의 태도에 후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거부하기 보다는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였고 아버지와 의견을 조율해 다시 복학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계상의 어려움은 생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형은 나 자퇴하고 나서 알안(알았어요), (형)뭘랜(뭐라고) 해신디(했는데)... 그래서 (형에게)나 좇나(많이) 욕 해버렸(해버렸어요).. 같이 들어서 욕했, 「알빠짜? 남의 인생에 상관하지 맙써」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고, 좇나(정말) 귀찮게 하니까, 정말 귀찮게 해, (학교)안 다니니까 너 이제 뭐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알아서 살랜(살라고), 그래서 내가 (집)나가서 (친구들과) 살았거든, (부모) 뭐라고 안 해, 나 알아서 살랜,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랜, 하고 싶은대로,,, 친척들 몰라, 지금도 몰라 [중간생략] 그냥 못 말하겐(말하겠어요) 그냥 못 말하겐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중간생략] 좇나 짜증났지, 내가 한하는데 뭘랜

(뭐라고) 뭐랜 하나까 짜증나지... 짜증나고,,”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킥서비스)

G 역시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인식은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힘들 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걱정스런 말투 속에 무시하는 듯 한 느낌, 부모의 무책임한 답변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부모의 무관심 등은 G의 학업중단 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만들었고, 집을 벗어나 친구들과 지내며 진로에 대한 목적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내게 만들었다. 지적장애 어머니와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또한 G의 학업중단 후 포기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G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각자 생활을 했었다고 했다.

“큰아빠는 검정고시는 안 된다고 힘들다고 복학하라고 복학 꼭 하라고 (제가) “ 복학 안되면은? 안받아주겠다고 그러면?(물어보면).. 그때는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고...”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H는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 사이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는 학업중단 후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했고,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큰아버지는 복학하라고만 했고, 절도 등의 문제행동으로 복학이 거절될 상황을 걱정하는 H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셨다. H는 자신의 학업중단 후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아무런 조력이 없어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빠가) 뭐라고 안했는데... 원래 표현을 잘 안 해요.. 뭘 해도 표현을 잘 안 해요, [중간생략] 원래 우리집은 대체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외박을 하던 늦게 들어오던 별로 막 그렇게 다른 집처럼 잡지 않는 것 같아요, 혼낼 때도 있죠, 혼내도 내가 짜증내서 방에 가버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거죠,”  
(I:여-19세, 중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



I의 아버지는 I가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한다. 조금은 방임적으로 I의 잘못된 행동에도 훈육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I의 일탈된 행동에 포기하고 지친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아무런 제지가 없는 상황에서 I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별 생각이 없었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에 바빴다고 했다. 아버지의 무관심한 반응은 학업중단에 대한 결정이 자신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했고, 그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중단 후 가족들의 반응은 사례마다 다양하였다. 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가출이나 가족과의 대화 단절,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거나 자신의 일탈된 행동을 반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과 자신감을 보였다.

Kaplan(1984)은 청소년기에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결핍 및 박탈은 자기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가족의 지지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과 미래낙관적인 믿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 2.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여기에서는 참여자들이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참여자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세계를 탐색해 본 후 이를 통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장벽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진학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혹은 복학을 선택하게 된다. 그들은 학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진학 방법을 선택해 검정고시 혹은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참여자들이 검정고시, 복학을 통한 진학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검정고시

“아무래도 학교 그만두니까요, ‘나도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딱 생각이 드니깐 그럼 내가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정고시)볼려구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가끔 불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고, 증줄하고 고입보고 이번 4월에 중학교 검정고시 볼거예요, 지금 목표는 검정고시 엄마말로는 검정고시 올백 나도 목표는 올백으로 잡고요, (검정고시 합격 후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구요”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검정고시 딱 붙으니깐 학교에 복학하고 싶었죠, 고등학교 빨리 들어가는 것도 좋고 또 제 아래보다 제가 나이에 맞게... (아니면)나이 좀 더 하나 올라가는 것 (한 학년 진급)도 좋고”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A, C, D는 학업을 중단한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학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들은 학업중단 후 학습을 계속함으로써 진학을 하고자 했고, 졸업장 등 학력의 중요성 또한 알고 있었다. A는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고, C는 고등학교 진학, D는 검정고시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년이 되거나 한 학년 위로 올라가기를 원했다. 이들의 학업중단은 학교를 떠났다는 것일 뿐이지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검정고시 학원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생략] 혼자 하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검정고시 문제집)보다가 (모르는게 있으면) 그냥 덮어요”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우선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독학 하는게요, 질문하고 싶어도 누가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게 답답하기도 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전 그게 싫었어요, 뭔가 지적인 것을 귀로도 듣고 싶었고...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귀에 안 들어오고 그때 그때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고, 가장 큰 게 독학이 문제가 되었어요,”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검정고시)공부를 하게 해 준다는지, 다른 사람(멘토)이 쉽게 말해서 가정교육 같은거, 기본적으로 무료로 해주면 좋겠죠.. ”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B, C, D는 검정고시 준비에 따른 학습적인 면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B는 전문계고를 다닐 때 학습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었기에 스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학습적인 면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이 많아져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C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직접적인 학습 외에 다른 분야(심리학, 물리학, 철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 지적인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C는 지적인 정보를 교류할만한 멘토 혹은 조력자가 되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날도 쌓여가자 답답함이 많아졌다고 한다.

A, C, D는 재학시설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그 중 C, D는 ○○학교(비정규 야간학교)를 등교하고, 과외를 통해 학습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

“검정고시는 쉽다”, “중2 수준/ 고1 수준이면 다 풀 수 있다” “올백 맞을거다”라며 검정고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원하는 학습 도움의 방향은 검정고시 합격 그 자체보다 상위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 도움과 조력이다. 그러나 B처럼 재학 중 성적이 좋지 않았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학습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 (2) 복학

“어차피 졸업장은 따야겠다, 복학?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돈을 벌자, 아니다 검정고시는 힘들 것 같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복학하자 [중간생략] 다시 (학교)다녀야겠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년엔 .. 뭘 해야 하지? 이제 뭘 하지? 무시 받지 않을까? 커서 대학 가는데 지장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미래에,.. 그냥 아니 그냥 취업하는데도 지장 있을까봐, 미래에 지장 있을까봐....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검정고시) 할려고 했는데요, 음.. 뭐지? 검정고시 할려면 일단 배우야 하잖아요, 뭔가 좀 터득하고 나서 시험 봐야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시험 치면 안되잖아요, 근데 가출했을 때도 공부 할 여건이 없었으니깐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할려고 했었는데 공부할게 없었으니깐 학원 같은데 다녀야하기 때문에 못했고...”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검정고시는 막 어렵다던데,.. 제 주변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 있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거 보려면 막 공부해야 하는데,...공부하기 싫어요, 으...자신 없어요, 강 복학해서 학교 다니면 졸업장 나오잖아요, 복학 하는게 쉬워요.” (I:여-19세, 중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

F, H, I는 학업을 중단한 후 검정고시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과 시험을 봐야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복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들 또한 학력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시험부담을 주는

검정고시 대신에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복학을 선택했다.

“학교 찢리면(퇴학당하면), 안 나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하던데, 그냥, 졸업장, 그냥 딸라구(가지려고요), 나 무조건 딸거, 몰라요,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장을 구할 때도, 그냥 돈 벌고 살고 싶어요.” (G: 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킷서비스)

G는 ‘학교는 안다니면 그만’ 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연히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복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나 복학 후의 계획은 전혀 없었고 단지 ‘먹고 살아야 한다’ 며 자신의 일을 제 3자 보듯이 ‘모르겠다, 나중에 되어봐야 안다’라며 방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F, G, H, I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지만 학교를 안 다니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며,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은 기본인 것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기본인 고등학교 졸업’은 학교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교육경험의 증명인 것이다.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복학욕구는 고등학교 중단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결혼이나 사회생활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증표를 얻을 수 있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학력의 중요성을 느껴 검정고시와 복학을 선택하였다. 그 중 검정고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하였고 복학은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선택하였다. 특히 전문계고를 중단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더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학력주의와 중단 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학력취득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시간의 활용과 관리

"하루 매일 집에서 30분(자습), 아침에 일어나서 화, 목, 금은 영어 과외 있거든요, 영어 과외 2시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2시간 반 휴일제외하고 매일 가고,... 가끔 불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고, 중졸하고 고입보고 이번 4월에 중학교 검정고시 볼 거예요, 현재 ○○학교 다니고 있고, 영어 과외 하나 뛰고, 나머지는 자습, 독학, ○○학교는 6시에 준비해서 7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10시에 끝나요, "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 있다가 화목금은 과외하고 7시 되면 ○○학교 가고, 7시부터 10시까지(수업 듣고), 영어,...오전에는 배웠던 영어 같은 거 공부하고, 근데 잘 안돼요,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면 안 해요. [중간생략] 수업 안 듣는 것, 늦잠 잘 수 있는 것, 낮잠도 잘 수 있고, 집에서 컴퓨터도 할 수 있고 학원도 안가고 그런 거죠, 프리... 그냥 기타도 배우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잘 시간관리 못하고요, 자면 자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게 문제예요, 제 스스로 해야 하는데요, " (D:남 -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C와 D는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비정규 야간학교)를 다니고 과외를 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 관리를 어느 정도 체계적이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외의 자율적인 시간에 C는 기타를 치고, D는 검도라는 운동을 하며 자신의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들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간의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맨날(매일) 아침까지 늦잠자고, 저녁에 실컷 놀고 늦게까지 놀고 중긴 했었는데..."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좋은거는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잠자고 싶은대로 자고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학교) 그만두고 1년 동안 알바만 했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계속 그냥 놀고 있고...”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제발 잠 좀 자지 말자, 일찍 일어나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자, 영어도 그렇고...”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알바요... 알바밖에 없어요, 알바하고 자고 알바하고 자고...(놀리)잘 안가요 피곤하니까... 예전애가 더 잘 놀았죠..” (I:여-19세, 중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를 했던 A, B, F, I 는 처음에는 학업중단 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시간 제약 없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늦은 시간까지 놀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학업중단 후 시작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 외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점점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며 오후 늦게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하고 새벽에 자는 것이 반복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집에 있는게 엄청 지루해요, 내가 뭐하는 거지? 집에서 막 뒹굴뒹굴 거리고 [중간생략] 하루 종일 tv만 봐도 힘들어요, [중간생략] 컴퓨터 맨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해봐서 알아요, 진짜 아! ~ 역시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아야지,, 학교에서,, 학교에서 시간 안 가는 것 같잖아요,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 절대 안가요, 너무 안가요, ”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음.. 아무래도 거기(학교)는 시간관리 해주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관리도 잘 안되고, 그냥 밖에도 안 나가게 되고, 햇빛도 못보고, 자꾸

막 나가도 딱히 할게 없잖아요. 놀죠, 딱히 하는 것 없는데,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그냥 앉아 있다가 tv보다가 컴퓨터 하다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음.. 그냥 그림, 낙서, 생각정리 하고 [중간생략] 얼마 정도(지나니) 허탈?? 한 두세달 .. 계속 기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보다가 컴퓨터하고 다시 TV보고" (E: 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집에서만 생활했던 H와 I도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H는 가출 후 집으로 돌아온 생활이 너무 지루했다. 가족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던 H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 때우기’의 활동은 지겹고 힘든 것이었고 장기간의 가출로 인해 시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생활습관을 갖게 된 H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할 일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시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는 학업중단 후 집에서만 생활을 했고 바깥출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 속에 무의미하게 쳇바퀴 도는 시간을 보냈다. 시간 관리는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기력해지고 뒤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점점 후회감이 밀려왔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에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귀찮고 힘들었지만 막상 학교를 벗어난 후에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C와 D는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비정규 야간학교)와 그룹과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의 짜여진 틀이 있어 시간관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외의 시간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A, B, E, F, H, I는 학업중단 후 하루 24시간이 모두 자신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시간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고 진로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었던 그들은 아르바이트와 집에서의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보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로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증가되게 되었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내는 동안 시간 관리의 어려움은 이들을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학업중단 후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3) 목적의식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부지런히 갈 뿐이지 그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불만을 가진 적도 없고 지금 ○○학교(검정고시 준비) 다니는 것도 좋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미래를 위한 지침들, 기둥을 쌓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초를 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본론이 아니다, 지금은 프롤로그이다, 라고 따지죠 "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C는 학업중단 후 현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미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만드는 '지침들'이라고 했다. C는 자신의 미래, 꿈(대학교수)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C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학업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주변의 시선도 C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만두게 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난 안 찢리는 줄 알았어요, [중간생략] 혁, 상상도 안하던 일이, 짜증났어요, 내 자신에게 후회했어요, [중간생략] 다시 다녀야겠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년엔 .. 뭘 해야 하지? 이제 뭘 하지? 무시 받지 않을까? 커서 대학 가는데 지장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미래에... 그냥 아니 그냥 취업하는데도 지장 있을까봐, 미래에 지장 있을까봐....[중간생략] 달라졌어요, 아 이제 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게 되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요, 후회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F는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장기무단결석이 많아도 설마 학교를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후회하며 이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뚜렷한 목적 없는 학업중단은 많은 후회를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F는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꿈(의류 디자이너)을 위해 복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F에게 학업중단은 자신의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C처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있고, F처럼 학업중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처럼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제 그때부터 슬슬 좀 현실파악.. 알게 되니까, 그냥 너무 놀다가 사람이 너무 나태해지면은 어느 순간 막 허탈해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인터넷으로 막 여러 가지 찾아서 그러다가 꿈에 흥미 지금 꿈(PD)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걱정하게 되고..."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E는 뚜렷한 목표 없이 학업을 중단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 또래들보다 뒤처지고 나태해진 본인의 모습에 후회와 걱정을 많이 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 잘 다니고, 꿈(가수, 스튜디오스, 간호사) 그거 있잖아요, 3가지 그것 중에서 2가지는 꼭 이룰 거예요, (돈) 많이 버니까 그리고 멋있고 그러니까

“그거 이룰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습 많이 하고...”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사회복지사, 그냥 좋아서,, 그냥 예전부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되고 싶었어요,, 좋은 일,, 그냥 좀 구체적으로는,,, 그냥 도와주는 것, 사람들,, 그냥 몸 불편한 사람들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려운 사람들.... ” (I:여-19세, 중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

“아직 하고 싶은게 없으니까요, (진로)그런 생각이 안나요, 확실히 생긴 건 아니니까 (레저스포츠)그런 쪽으로 나가야겠다, 뭐 조정면허 이런건 하고 싶죠, 검정고시 불려고요, 그 다음에 대학가야죠, [중간생략] 레저스포츠학과인가 그거,,,거기 가서 정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다고 하길래,,, 마땅히 할 것도 없고..”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B, H, I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은 없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이야기 하기는 했지만 단지 막연히 되고 싶다는 표현을 할 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진로를 위해서 성적관리, 학과선택, 자격증관리 등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복학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대학가야죠.”하며 추상적인 진로계획만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진로는 되고 싶다는 소망이지 실천하고 있는 진로는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목적의식의 부재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가 없으며 이러한 진로는 막연히 꿈으로 남을 뿐 실천되기는 어렵고 이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다.

이시형 외(2002)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을 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는다는 연구결과처럼 목적의식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에 불확실하거나 대안이 없는 모습, 혹은 그런 목적의식이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확실히 찬 뚜렷한 목적의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는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으며 무의미하게 소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 4) 자신감

앞에서와 같이 학업중단 후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덧붙여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장재홍 외(2002)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자신에 대한 통찰을 회피한다고 한다. 그래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상담에서 마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듯이 반응하거나 어떻게 될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다 보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저는 학교 그만뒀도 이미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미래를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행동에 뭐냐... 뭐라고 해야 하지 불편한 점이나 다른 걸 더 개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오로지 이 생각(검정고시와 대학진학)만 하고 가는 거니까 나는 따로 상담 받을게 없구나 라는 생각 했어요,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깐 ”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A는 학업중단 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계,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서 다른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학생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자신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고 검정고시, 그 후에는 대학진학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학의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졌으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라는 A의 자신감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꿈을 가지는 책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꿈을 가질 수 있는 ..tv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되야겠다 하고, 또는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내 스스로 찾아냈어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좋겠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되었고, 책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C는 꿈에 관한 책과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스스로 찾아내고 선택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는 스스로 찾아내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어... ○○(친구)도 외고 간다니깐 같이 외고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다시 (검정고시)볼 수는 있는데요, 다시 보기는 싫어요, 다시 보게 되면 점수 또 다시 낮게 나오면은 다시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봐야하는데... 싫어요."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D는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이미 합격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다시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를 봐야 했다. 하지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자격검정고시 대신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해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 검정고시가 쉽다고는 하지만 다시 재시험을 봐서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D에겐 부담을 주는 선택이었다.

"그니깐 그때(학업중단 후) 밖에서 살다보니까 (사회)경험이 있으니까, 밖에서 (사회 나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경험도 있고 충분히 많아요."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쿼서비스)

G는 학업중단 후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했고, 집에서 나와 친구들과 생활한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듯 반응하며 어떻게 될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면담하다 보니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몰라요”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업중단 후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조영승 등, 2001). 이처럼 겉으로 자신감 있는 듯 한 모습은 진로에 대해 준비되어 자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반면 자신감이 부족한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거나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 자신감 있는 척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 한 듯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 5) 진로의사결정

“이제는 열심히 (고등학교) 다닐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대학교 좋은데 갈 수 있으니까, 예술, D대 갈거예요. 00지역에 있는, (D대) 등록금 싸요, 예술 배우고 등록금 싼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패션, 패션 디자인... [중간생략] 3월에 복학 하고 중간에 방학 때 누나에게 미용 쪽 (기술)배우고, 어느 정도 (미용)손재주 배우고, 이제 대학교 가고... 아무거나 하나 하나 다 전부 다 배우고, 자동차 기술도 배울 때 배우고 배워두면 나쁠 것은 없잖아요, 하여튼...”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F는 학업중단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결정에 있어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었다.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고, 등록금도 저렴하며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았고 결국 자신의 조건에 맞는 D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복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진로와는 무관하지만 미용기술, 자동차 기술들도 모두 배워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세 가지, 스튜디어스, 간호사, 가수...가수는 내가 꼭 되고 싶은 거고요, 스튜디어스는 S여고나 J여고(인문계)가면은 스튜디어스과로 빠질 거고 삼성여고, S여고 갈 성적에 좀 미달되면 K상고(전문계고)에 간호학과 가가지고 간호사로 빠지고 그럴거예요, 좋은 쪽으로... [중간생략] 그리고 가족생활이 좀 화목하게 만들어 봐야죠,, 만들어야죠, 공부, 공부는 간호사나 스튜디어스를 위해서 공부고 무조건 공부고, 가수는 연습, 연습벌레가 되야죠, 영어실력 높이려고 단어도 막 외우고 있어요."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H는 가수, 스튜디어스, 간호사 이렇게 3개의 진로를 꿈꾸고 있었다. 희망진로를 질문하자마자 바로 이 세 가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H는 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자신의 성적에 따라 차선의 대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H는 복학을 한 후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정의 화목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 가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공부의 중요성, 스스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보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많았다.

"희망진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요, 딱 한 가지 정하라고 하면 잘 못 정하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희망진로) 없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A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진로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고 했다.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따지면은요 전부 엄마로 인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이 없어요. 엄마가 가라는데 가고, 엄마가 하래서 하고, 엄마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전부 과언이 아니죠, 그와 같이 오석학교도 엄마가 가보래서 간 거예요, 나 스스로의 의지는 없었어요, 싫지는 않아요, 단지 내가 이것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던거지... ”

엄마가 도움을 많이 준거죠, 내 인생은 엄마다 싶을 정도로, 엄마가 없으면 어찌 살아갈지... 중죠, 갑갑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글썄요? 엄마가 제 꿈을 정하거나 그런거는 아니죠, 지금은 이 기초적인 선을 따라갈 뿐이지... 지금 엄마가 갖고 닦아 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엄마는 지원되는 것이지 지금은 단지 기초일 뿐 이죠.”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C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토피로 학교생활도 힘들고 주변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C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지지원이고 진로결정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지금은 엄마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초적인 선’을 만들고 있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C는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지지로 서로 조율하며 진로를 결정하고 있었다.

“지금은 일단은 PD, 목표 없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막 확신 갖고 이런 건 아니고,,, 부모님 설득한 다음에 검정고시 보고 일 년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다가 18살 때 서울 가서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서울에 비해서 문화생활 이런 건 기회가 적으니까”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E는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우선 PD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는 했지만



확신이 있기보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나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한 것이 PD였다. E는 서울이라는 좀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싶다고 했다. E 역시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결정하기 보다는 제주라는 지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주변사람들에게 무책임하고 보이지 않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식’의 진로결정을 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외교관, (저는) 아직은 딱히 정하지 않고요 여러 개도 있고요, 아직은 잘,, 대강 기타리스트, 그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아요. [중간생략] 외교학과... 걱정 되죠 어떻게 가야할지..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것도 걱정되고... 진로에 대해 한두 번 궁금해 가지고 외교학교 검색해 보고..”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D는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였다. 부모님은 외교관이 되길 원해서서 외교학과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기타리스트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가 없어 두 개의 진로에서 고민 중 이라고 했고, 진로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냥 평범하게 아까 공무원처럼 안정되게 살고 싶어요, 생각해 본 게 없는데... 생각나는 것도 없고.. [중간생략] 어떤 직업인지는 상관없어요, 안정적이면 좋겠어요.”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그냥 돈 벌고 살고 싶어요, 나 먹고 살아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할거 아니, 맨날(매일) 굶으면서 살수는 없으니까 맨날 집에가서 살 것도 아니고 [중간생략] 학교 몰라요...졸업하고 나서 나 뭐해? 아,,, 군대 갈꺼, 몰라요,, 그때 갔다 와야...”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킥서비스)

B와 G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없다고 했다. B는 단지 안정적인 직업이면 어떤 직업이어도 상관없다고 했고, G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탐색하려는 의지도 약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정보도 부족했다. 단지 막연하게 안정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서 학업을 중단했다기보다는 학교를 도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꿈)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진로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진로가 뚜렷한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목표를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학업중단 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 후 스스로 진로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점점 진로결정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로의사결정을 했다하더라도 그 목표와 계획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많았다.

## 6) 정보수집

"(검정고시)보러 갈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왜 신청기간이 2달 전에 하잖아요, 다른거랑 다르게, 그리고 기간도 엄청 짧단 말이에요, 그건 알려주지도 않고, 그 기간 찾다가 못 찾아서 못 갔어요, 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4월 8월 둘 다 놓쳤어요, [중간생략] 학교에서는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직업들 해보라고 직업추천 들어오잖아요, 다양한 직업이 막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양한 경험도 느낄 수 있는데 학교 그만둔 애들은 그렇게 없잖아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집단따돌림,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A는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를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지만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웠다고 했다. 작년에 검정고시 접수기간 2번을 모두 놓쳐 검정고시를 볼 수 없었다고 하는 A는 다른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접수기간을 놓쳐

시험을 못 치른 경험이 많다고 했다. 또한 A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해 고민이 많지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제공받는 진로관련 정보를 학교 밖에서는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A는 혼자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A는 검정고시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검정고시 정보)인터넷 같은데... 혼자서 찾아야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런거 있으면 좋지요, 언제 하는지도 알고... 좀 불편하죠..(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D는 학업중단 후 ○○학교(비정규 야간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의 소개로 ○○학교(비정규 야간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후에는 ○○학교(비정규 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 야간학교)를 벗어난 곳에서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 힘들었다며 검정고시에 대한 벽보를 보거나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D 역시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진로에 관한 정보들을 찾고 검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친구, 선·후배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 7) 아르바이트 (근로경험)

"아르바이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그 때는 뭐, (아르바이트)할 만한... 범위가 넓지 않아서 그냥 식당, 요즘 들어서는 편의점 같은데서 가능하니깐 (편의점에서)일하고, 게임방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했어요. 한 1년. 편의점은 이제 한 거라 3~4개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2학년 다니기 전 겨울방학부터.. 피자집, 오토바이 타서 배달하는거요, 처음에는 배달하다가 나중에는 피자 만들었어요."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일하고 있던(있었어요), 선과장도 하고, 배달도 하고, 운수도 하고, 조과장 (기사보조), 그니까 쉽게 말해서 기사 딱같이(보조), (화물차에) 물건을 올려주는 사람요, 선과장 다닐 때는 좇나(정말) 힘들어신디...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쿼서비스)

"pc방도 하고요 발일 하는거...중노동. 마늘만 하루 종일 뽑는 거예요, 그것도 해보고 고깃집 서빙 알바랑 뼈감탕집 서빙 알바...pc방 하고 서빙을 제일 많이 해봤어요, '하루일수당으로 드립니다' 하고 오일장 신문에 떠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중간생략] 발일 하는거 원래 4만원이에요, 근데요 원래 학생이러서요 3만원만 주고 그럴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발일을 무진장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4만원 줬어요, 서빙알바는 시간당 5천원 센거는 6천원, pc방 알바는 시간당 2700원 "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친구랑 갈비집에서 처음 일했었어요, (아르바이트는) 주로 식당에서 서빙하는거... 지금 일하는데서는(고깃집) 1년 넘었어요, [중간생략] (아르바이트 구할 때는) 그냥 친구들 일하는 가게 가서 일하거나 전단지 보거나.."(I:여-19세, 중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

A, B, F, G, H, I 연구참여자 거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식당 서빙, 오토바이 배달, 발일, PC방, 선과장, 택배

사무소, 보조기사 등 열악하고 전문적인지 못한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식당서빙, 오토바이배달, PC방 등을 전전하고 있었으며 전단지나 청소년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직장이 비연속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보니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불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도 솔직히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니까는 왜 아니꼬와(부당해)도 일하게 되잖아요, 무조건 일을 해야 하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인이라는 사람은 좋게 대해서도 될 것을 꼭 나쁘게 대하고, 저 옛날에 한 식당에서 일했을 때요 [중간생략] 사모님이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입 열면 욕이에요, 엄청 심한 욕을 하고요 [중간생략] 실수 한번 했다고 사람 엄청 많은데서 엄청 크게 욕을 해요, 저한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택배사무실) 시간당 7000원 주기로 했는데 5000원 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만뒀어요, 받을거 다 받고 그만뒀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주던데요”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일도 좇나(정말) 늦게 끝나 치킨집... 거기 사기꾼이라니까 거기서 일한(일했어요).. 한 달에 백(만원)받아서 일한 그니까 다섯 시 출근해서 한시까지 주말엔 2~3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사장 지 놓고 싶으면 놀러가.. 그럼 닭 내가 튀겨 내가 튀기고 내가 다 해.. 배달도 내가 다 해 [중간생략](사장)개 사기꾼 월급도 제대로 안줘 100만원.. 아, 장난 하나?, 나 거기서 일한 양하고 시간이 얼마인데.. 우와!~ 나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처음 뵈.”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킥서비스)

특히 A, F, G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경험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듣는 욕설과 비하발언은 부당한 대우였지만 대부분 그냥 참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고, 어리기 때문에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된다, 혹은 어쩔 수 없다 하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계약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처럼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부당대우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가 부딪혔어요, 우리 집은 남들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간생략] 벌어오는 돈이 항상 부족해요, 제가 스스로 번 돈을 엄마에게 줄 수 있어서 좀 부딪혔어요, 이러면 엄마가 안 힘들어하겠지, 이런 생각하니깐 괜찮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한 돈은 무조건 엄마 주거든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서빙 하는거 홀, 재미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만나고...그래서 주방에 들어갔을 때 주방이 싫었어요 사람 못 만나니깐 싫었어요, 일은 쉬웠지만,,”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그냥 새로 배우는거 있잖아요 만드는 것도 배우고 처음에는 배달하다가 나중에는 피자 만들었어요, 배달하는 것보다 만드는게 더 재미있었어요,”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하지만 꼭 아르바이트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안 좋은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A는 자신이 일해서 번 임금을 부모님께 드리며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긍정적인 의미를 제공했고 F, B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신에게 잘 할 수 있는 것, 흥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주장하는 장기적 영향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일의 경험은 다중역할 수행의 경험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Mortimer et al, 1986), 자기 효능감 내지 자아존중감 증진에도 효과적인 (Markus et al, 1990)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학교 그만둔 애들은 극복안하고 계속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만 하고 미래를 안 보잖아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지금 그만둔 애들은 (일을 해서)돈을 받잖아요, 월급, 돈 맛을 알잖아요, 그럼 아 그냥 검정고시나 볼까? 알바나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요, 그래서 복학을 안 해요, 그런데 또 검정고시 공부를 안 해요, 못 보게 되요, 돈 쓰고 놀다보면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중간생략] 돈 벌고 쓰고 놀고, 또 벌고 또 쓰고 놀고 육지 같은데 놀러 가고 육지 살러 가고”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하지만 이들은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보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돈을 벌고 쓰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흥문화에 빠지다보면 아르바이트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했다. 본 연구참여자 가운데서도 B, G의 경우 자주 임금가불을 하다 보니 월급날에는 거의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고, 계속 가불한 돈을 갚고 돈을 쓰고 하면서 늘 돈에 쪼들리며 쳇바퀴 도는 듯 한 느낌을 받았었다고 했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중학생 아르바이트 하는데 없잖아요 예전에 몇 번 가게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구하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없었는데,, 그냥 어느 것 생각 안했는데 막노동만 아니면 되는데,, 중학생은,,, 잘 구하지를 않아서”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그때(가출)요 (아르바이트) 할려고 했었는데 안받아줬어요 ,학생사절.[중간생략] 돈이 없어지니까요 차털(차 안에 있는 물건 절도)부터 시작했어요. [중간생략] 나중에는 (남의)집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최고로 많이 나온게 70만원.. [중간생략] 금 같은 것에도 손대기 시작했어요. [중간생략] 밖에 나가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럼 훔치게 되잖아요, 그것(절도)을 경찰에게 걸려서 (집에) 들어 온 거죠, [중간생략] 자퇴했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퇴를 했다고 그럼 불쌍하다는 식으로

봐주면서 [중간생략] 고2라고 하면 말하면 학생증 이런거 검사 안하는데 주민번호 앞자리 바꿔서 이야기하고 주민번호만 이야기하면 대충 다 믿어요, 아이~ 너무 잘 속아요, 사람들이..."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E와 H는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특히 중학생의 나이는 이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었다. 특히 H는 가출을 하고 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학생이라 신분상의 제약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힘들었고, 돈이 필요했던 H는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하게 되어 경찰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번호를 암기해 나이를 속여 아르바이트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취업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일에 대한 욕구 및 필요는 매우 많지만 취업에 관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근로시간도 대부분 야간시간대에 몰려 있고, 직종도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종사한다고 해도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다는데 문체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적인 만족과 성취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인식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이 된 후 가질 직업과의 연계성 결여는 이들의 취업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악순환의 고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 8) 인간관계

"저도 뭐냐 교복입고 여자애들 세 네 명씩 뭉쳐 다니면서 막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커피숍가고 막 그런 건 부러웠어요, 아~ 나도 아직까지 학교 다녔으면은 좋은 친구들과 저럴 수 있었는데 맨날 막 부러워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교복 진짜 입고 싶었어요. 그냥 여자친구랑 놀 때 개는 교복입고, 나는 사복 입으니까 이상하죠. 같이 교복입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 비정규 야간)학교는 거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중간생략] 다섯 명은 조금 젊으신 분 30대 40대 제 또래는 저 밖에 없어요. 우선 가장 크게 지루하고요. [중간생략]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때는요. 나로서는 삭막한 사막이죠. 나로서는 풀 한포기 안 나는..."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학교 끝날 때 쫓으면 다른 학생들 다 교복입고 그러는데 저만 사복입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있고, 교복 입고 싶었죠. " (D: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준비중)

"교복 입은거 보면 부럽고... 나중에 제 또래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 동아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거 이런거..." (E:여-17세, 중2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그래도 학교 애들이 여름방학 때 (제가)자퇴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우도 놀러 간대요. 아, 진짜? 하니까 나보고 올거냐고 물어보대요. (중간생략) 그때가 마지막.. 거의 친구들하고 놀았던게.. 다 같이 모여서.. 쫓나 그리웠죠.. 지금도 그리워요. 솔직히..."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킥서비스)

"교복 진짜로 입고 싶었어요. 교복입고 돌아 다니는거 볼 때 나도 입고 싶다."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C는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계획 중이다. "고등학교 가까워 지니깐요. 막상 설레죠" 하는 C는 또래에 소속되고 싶은 강한 열망을 표현했고 그것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단절되는 친구들과의 관계와 소속감 상실로 학교생활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이나 사회적 적응 및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이 또래로부터의 경험이라는 점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또래 경험의 중요성(Dusek, 1991; Ingersoll, 1989)을 시사해 준다. 또한 친한 친구가 있다면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사회적 자신감이 증가하도록 사회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심희옥, 2000)고 했다. 하지만 학업중단한 청소년들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원을 받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여 점점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다음연도에 복학을 해야지 했는데 못 다녔어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적응이 안 되었어요, 막..그렇게 친하나 후배가 많지 않고 (같이 복학한 친구) 다 다른 반이고, 그러면 솔직히 체육시간 가는 것도 뭐하고 막 이동수업 할 때도 그렇잖아요, [중간생략] 애들이 좀 피했어요, 막, [중간생략] 나 무서워하고...”  
(1:여-19세, 중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I는 학업중단 후 다음해에 복학을 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이 졸업한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같이 복학을 한 친구가 있었지만 모두 다른 반이 되어 교실 외에서 하는 이동수업, 체육, 점심식사 등의 시간들은 더욱 더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점점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을 더욱 힘들어진 I는 또다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복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로의 복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보다 하급생이 되는 것도 참아내기 어렵지만, 다시 그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복학을 망설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학교에서의 소속감과 또래의 관계 외에도 사회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학업중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고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인식은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A, C, E, F는 학업중단에 관한 주변의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저 혼자 (평일에) 시내 왔다 갔다 그러면 막 뭐랄까 사람들의 시선들이 느껴지고 [중간생략] 학교 땡땡이치는 것 같고 불량학생 같고 이런 거,,,"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친척들 앞에서 [중간생략] 어찌 어찌 이야기가 저로 흘러가다보면,, 학교 그만 두었다고 이야기 하는 거죠, 제 이야기 할 때요? 그냥 뭐,, 그냥 듣고 있었죠, 그냥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보다 대답 잘 해야겠다, 좀 무책임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E:여-17세, 중2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무시하니깐, 친구들이 학교 안다닌다고 왜 그랬냐고 정신 바빴다고,, 안 긍정적이죠,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 했어요 곳곳하게,,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 준비 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C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주변의 어른들이 불량학생으로 보는 듯한 시선이 불편하고 싫다고 했다. E는 학업중단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긴장하게 되었고, 항상 어른들을 만날 때면 안 좋은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F 또한 자신의 무책임한 태도로 학업이 중단된 것을 후회하고 복학 후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며 지내는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피드백과 시선은 늘 그를 힘들게 했다.

이처럼 이들은 학업중단 후 주변의 시선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주변 상황은 늘 힘들고 불편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건 다른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학교 그만둔 애들은 다 하나같이 애들말로는 양아치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같이 경찰서 가고, 다 하나같이 애들 패고,, 그러니깐요 개네한테요 학교 그만뒀도 너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중간생략] 아르바이트만 하고 미래를 안 보잖아요,

지금 상황만 보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PC방 아르바이트)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다른 학업중단 청소년이 보이는 일탈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일탈행동은 다른 학업중단자에 대한 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부 일탈된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자신들을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고 보는 시선에 대한 부당함을 느꼈다.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지지 열렬한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아무 말 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생략] 아무래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면 더 에너지도 생기고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됨을 느낄 공간과 함께 어울리는 또래에서의 소속감을 얻기가 힘들다. 또한 주변에서 보는 좋지 않은 인식은 이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며 아웃사이더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다. 이시형 외(2002)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태도로 인해 학업중단 과정상의 적응이 촉진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부모가 관심, 믿고 기다려주는 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지지자들이 되어줄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 9) 학업을 중단하려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후회 안하냐고 말하고 싶어요, 네가 지금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은 진짜 재미있는 건데 지금 그만두면 평생 후회안할 것 같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PC방 아르바이트)

“그냥 나와서 후회할거라고... 나도 그런 말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제 오니까 후회하고 그 생각 계속 들어요. [중간생략] 요즘은 막 대학교 나와도 직장 못 다니잖아요, 잘 다녀라 좀만 참고 더 다니면 금방 가는 거니까 시간은.. 자퇴하면 후회한다.”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무조건 학교는 다녀라 학교 안 찢리게만 해도 괜찮으니까.. 몰라요, 학교 찢리면,, (학교)안 나오고(졸업) 하면 나중에 후회하던데”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 중, 킥서비스)

A, B, G는 “후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들은 학업중단을 통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학력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졸업장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이들은 학업을 중단한 후 정말 자신의 결심대로 진학을 할 수 있는지 그 후에 직장은 잘 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에게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고 했다. 학교를 벗어난 이들은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의 제도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복학을 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하고 그래야만 사회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 말라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이제 자기만의 계획 아 세워놓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안하겠지만 중학생은,,, 그때는 그냥 아주 뛰어난 영재가 아니면 스스로 시간 관리도 잘 못 할 거고, 사회 인식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중학생이 자퇴한 애들은 나중에 사회 나가면... 만약에 이력서 작성하잖아요, 그런 거(학업중단 이유) 보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모르겠는데...”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하지 말라고, 그냥 계속 다니면 재미있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그래서 빨리 찾아서 결정을 내리라고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확실한 길을 찾아서 그만두던지 참아서 대학 가던지..”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E와 F는 계획과 목적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목표와 계획이 있는 학업중단은 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싶다고 했다. 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E는 중학교 때는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더 만류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부정적인 사회에서의 인식과 훗날 직장을 구하는데도 학업중단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 학업중단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은 후 학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개념도 만약에 저처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꺼였으면 저라면 차라리 학교 그만두라고 이야기 했을텐데,..그게 아니면 학교생활쯤이야 그냥 꼭 참거나 자기가 조금만 개선하면 바뀔게 분명하잖아요, 그니까 그것만 바꾸면 학교 꾸준히 다닐 수 있는데 왜 그만두는지..”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PC방 아르바이트)

“우선 그 사람 힘든 점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처한 상황, 왜 자퇴를 하려고 하는건지 등을 알아봐야죠, 저는 다녀보란 말 그런거 안 해요, 다녀 보라거나 이런 뻔한 조금만 힘내서 다녀라 이렇게는 안 해요.”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A와 C는 학업중단을 하게 된 계기. 즉 그들의 힘든 점을 알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단지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청소년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특히 따돌림으로 힘들었던 A와C 그리고 예전에 초등학교 때 잠시 따돌림을 당했던 H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아무런 해결책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힘든 점을 이야기하며 이들에게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이들의 힘든 점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에 대해 “후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본인의 의지 또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 복학을 준비하며 현재 진학을 준비하지만 이들에게 학업중단의 선택은 학교·또래에 대한 소속감 상실, 학교에서의 추억 부재 등 학업중단 후 많은 상실감을 가져왔다. 또한 학업중단 후 목표가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며 지내기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에게 학업중단 후 잃게 되는 것, 주변의 시선 등에 대한 염려와 함께 학업중단 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조력 방안 모색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중단 후 도움 받고자 하는 것과 진로탐색 과정에서 겪는 진로장벽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를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학업중단 후 도움 받고자 하는 것

“검정고시 학원 같은가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1:1 과외 이런거요, 그런거는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병원 다니고 그랬으니까 또 어렵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1:1 과외 이런거... 딱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부

있잖아요, 나와 마주보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부였으면 좋겠어요, 기초가 쌓였을 테니까.”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검정고시공지) 인터넷 같은데... 혼자서 찾아야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거 있으면 좋지요, 언제 하는지도 알고... 좀 불편하죠, [중간생략] 공부를 하게 해준다는지...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해서 가정교육 같은거... 기본적으로 무료로 해주면 좋겠죠.. [중간생략] ○○학교(비정규 야간학교)는 밤에 하니깐 가기 싫죠, 피곤하고 귀찮고 왜 하필 밤에 하는지 그냥 아침에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B, C, D는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습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조력자와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 후 혼자서 정보를 찾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들이 학습을 지속시키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고, 학습향상을 위해 개인학습 지도 및 공부를 할 수 있는 무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진학을 위한 학습적인 조력 외에 진로에 대한 조력을 원했다. 진로에 대한 체험학습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은 취업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게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에 관해 도움 받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차비 같은거는 다 저희가 들어야 해요, 그니깐 단순히 요리 배우는데 들어가는 것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니깐요 제가 원하는게 뭐냐면요, [중간생략] 10가지에서 20가지 안에 학교 그만둔 애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니깐 한 건물 안에 그런 강습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니깐 따로 따로 여기가고 저기가고 요기가고 해서 따로 따로 자격증을 따는게 아니라 한 건물 안에서 한꺼번에 딸 수 있게... [중간생략] (여기 저기 배우러 다니면) 애들이 지쳐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재미있어 가겠지만 아 내일 또 가야해? 그 멀리 또 가야해? 이생각하다보면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냥 편하게 한 건물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PC방 아르바이트)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직업관련 뭐... 이런 거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고 싶은 걸 말해주면 구해주는 그런것...” (B:남-19세, 고 2 전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센터에서 했던 것들(진로체험 프로그램)... 평소에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통해) 내가 할 수 있는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 재미있고, 내 재능이 뭔지 그런 것도 있고... 머리를 쓴다는 거나 또 손의 재능, 손재주가 있다는 거나... 자신감도 좀 생기고...”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직업체험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만약에 자기 꿈이 있으면 바로 관련된 직업체험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있으면 (직업체험) 하겠죠..... ”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선생님(연구자)이랑 한 것(○○○ 진로체험 프로그램)처럼 더 폭넓게 체험을.. 직업체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상담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F:남-20세, 고3 중단, 현재: 복학 준비 중,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A, B, D, E, F는 진로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 했다. 연구자와 함께 참여했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재능도 발견하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했다. 이처럼 이들은 진로에 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원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도 알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진로지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비지원 프로그램의 보완점을 이야기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마치 학원처럼 각 방마다 서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다양한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편의점이나 pc방 알바 같은 경우에는요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해서 시급을 엄청 작게 주거든요, 엄마가 말했는데 청소년 최저 임금이 4100 얼마라고 하던데 저는 3700원 받고 일해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편의점은 처음 시작임금이 2700원이거든요, 솔직히 2700원 받고 한 달 일하며 벌 바에 4000원 받고 식당일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식당이 조금 힘들 겠지만 그만큼 버는 돈이 있으니깐, 그래서 임금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A:여-19세, 고1 인문계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 PC방 아르바이트)

“알바자리,,, 마련....” (E:여-17세, 중2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또한 이들은 학업중단 후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 한 후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 등이 열악하고 또한 비전문성, 비지속성, 낮은 임금수준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들 또한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당함을 이야기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건전하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기회제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적 장치를 원하고 있었다.

“연습실... 있으면 좋겠어요.. 축제 때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연습할 공간 없으니까, 뭐 학교 축제 그런거 할 때 아니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D:남-16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D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놀거리가 없다고 했다. D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놀 거리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취미와 여가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여가활동의 제공은 이들의 재능 개발과 함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학업중단 후 비행과 유흥문화에 빠지게 되는 속도가 빠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는 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놀이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상담 기관은요 필요 없어요, 상담기관이라는 곳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건 답을 찾아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 답을 찾아주지 않아요, 제 답을 찾아주지 않으니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C:남-15세, 중1 중단,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

“죵,, 나만 말하는거 있잖아요, 나만 계속 혼자 말하는거, 막 종진 않았는데 [중간생략]니 사정은 그렇구나, 그런 말들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썼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담 하는게 죵, 많이 도움 안 되고 그랬는데,, 상담을 해도 별로...[중간생략] 음... 그니까 막 학생하고 (담임)선생님하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상담해가지고 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중간생략] 너는 집에서 뭐 힘들거 하는거 없니? 물어보고... 얘기하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걸 안하니까 선생님들이 몰랐던 거고 상담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죵 더 빨리 조치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 중)

C, H는 상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상담을 통해 확실한 답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C는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후 자신의 힘들고 복잡함, 그리고 진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공받기를 바랬지만, 그런 것을 제공받지 못해 상담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남게 했다. H 또한 상담을 통해 혼자서 이야기하는 듯 한 느낌과 해결방법이 도움 되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담의 부정적인 느낌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상담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클래스(상담실) 문 잠겨있, 상담 받아본 적은 없어요, 거기서 담배피고, 놀고, 자고 밖에 안해봐, tv보고... 아, (○○클래스에)선생님 어서.. 문 잠긴거 우리가 따그네 들어가서 담배피고 그 다음에 문 안에서 잠가볼면은 모르주게”  
(G:남-20세, 고3 전문계 중단, 현재: 복학 준비 중, 퀵서비스)

G의 경우 학교에 상담실은 있었지만 문이 거의 잠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학생들이 비행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상담실 구축도 중요하지만 상담 전문가가 학교에 배치되어 상담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이 본 취지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 잠자거나 할 수 있는데 센터 같은데 [중간생략] 언제든지 와서 잠을 자도 되는데 [중간생략] 일시보호소는 밥도 주고 다 줘요, 옷도 헌것은 아니잖아, 가출했을 때 입었던 옷이 오래 입었으니까 그것 빨아주고 다른 옷을 주고.. 그래서 좋아요, 일시보호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가출을 딱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아 이러이러해서 가출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면 해결해주고,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거, 그게 실제로 많이 없는데... 많이 없다기 보다 그냥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집 들어가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거..”  
(H:여-16세, 중2 중단, 현재: 복학 준비중)

H는 학업중단 후 가출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움 받고자 했던 것을 이야기 했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 중단 시기가 길어질수록 비행으로 빠지는 경우가 급격하게 많아짐을 볼 때 가출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조력이 필요하다. H는 가출 후 길거리 생활을 하며 길이나 아파트 옥상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고 일시보호소처럼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기관은 이들이 더 큰 이탈과 비행으로 빠지는데 중재역할을 해준다. 또한 가출한 상황에서 가출을 하게 된 원인과 해결책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출 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가정으로의 송환은 이들을 다시 집 밖으로 내몰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학습과 진로부분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했다. 학업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정보 제공, 학습지도를 도울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취업준비와 관련된 체험활동 및 교육훈련, 취업에 관련된 정보 등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기회 제공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전문적인 상담과 가출 시 도움을 제공해주는 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믿음과 지지를 필요로 했다. 이중 진로와 교육(진학과 취업교육 포함)에 관련한 욕구가 강한 것을 보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단지 학교를 떠났을 뿐이지 진로와 관련하여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준비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진로장벽과 진로조력 방안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정서적 지지의 부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 가족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사람들 즉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부족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또래집단에 소속되어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가족, 또래, 주변사람들로부터 학업중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며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주고 인정,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이다(Cohen & Hoberman, 1983). 홍나미(1998)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화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으로

스트레스 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심리적 작용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고 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결핍 및 박탈은 자기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Kaplan, 1984). 이렇듯 정서적 지지는 이들이 결정한 학업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 설계 및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 또래, 사회의 정서적 지원체계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의식, 진로목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목적의식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설계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하나씩 성취하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진로목표와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이 진로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진로프로그램과 상담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 외에 가정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거나 진로설계를 하는 조력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자신감 부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 진로 목표를 달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을 극복하는데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자신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추진력,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정서적인 당당함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어려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미 의사결정을 내린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연구참여자가 있는 반면 주변에 보여주기 식인 의사결정을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진로의사결정시 도움을 제공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진로에 대한 정보, 자신의 적성·흥미 등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시간 관리와 활용에 대해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시간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안의 수업과정에 따라 시간이 관리되지만 학교 밖에서는 본인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표현했는데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짜여진 틀 없이 하루 24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었고 점점 나태해지고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졌다.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줘야 한다. 시간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시간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시간 관리를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관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향해 꾸준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시간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시간관리 능력에 도움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여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정보수집의 어려움이다. 학업중단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정보를 얻는 방법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부모,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스스로도 정보를 얻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인터넷을 통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질적으로 좋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인지의 여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안내해 줄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학교, 대학, 취업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들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상담을 통해 진로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외에 자기이해와 탐색, 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과정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며 이를 통해 진로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전문적인 상담의 부재이다. 청소년 상담과정에 가장 주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내담자의 장점, 기술, 경험, 신념, 목표 등이다 (Murphy & Duncan, 1997). 학업중단 청소년의 신념을 인정해 주면 그들이 계획하는 목표성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상담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상담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조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들이 보다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커다란 좌절로 인한 자신감의 부족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찾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노력방법을 찾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과정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목표와 계획을 존중해 주며 이들을 도와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만일 복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과 관련된 상담이 필수적이다. 이때 학습습관, 학습과 관련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하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상담실이 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관심인 ‘청소년 취업상담’, ‘복학상담’ 등의 코너를 만들어 이들을 상담실로 흡입하거나,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향후 지도를 관련 상담실로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취업관련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요구되는 만큼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도 부족하지만, 기회가 주어져도 기초학력의 부족, 학습습관의 결여, 행동장애 등으로 직업훈련 과정상의 어려움을 직면하기 쉽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 및 행동교정을 병행하는 직업훈련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훈련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취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 알선 및 소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정의 직업 교육을 마친 경우 취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가 고용안정센터 및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취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다양한 진로장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본인 스스로도 진로장벽을 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이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서 다양한 조력방안을 제공해주고 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으로 나온 이탈자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제공해 줄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자신감, 목적의식, 확고한 진로 의사결정 등을 통해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가족, 학교, 사회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력하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V.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과 조력요구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조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중단의 경험과정을 통해 본 주요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주변의 관심과 정서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안현의(2002)와 한수현(2003)의 연구에서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미순(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 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진로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봉환(1997)은 진로미결정의 원인과 비탐색의 원인이 사회적 지지가 미흡한데서 그 원인을 보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가족의 무관심, 또래친구들과의 단절은 그들을 점점 고립되고 소외되게 만들었고, 진로를 혼자 책임져야하는 부담감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벽으로 다가왔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타인으로부터 이해 받고 존중받을 때 목적과 목표, 그리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권현진(1998)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면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사회적 체제와의 연결망이 단절되어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누려야 할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도 학업중단

후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표현하며 학습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기관, 멘토 제도, 프로그램 제공, 검정고시 정보, 복학 안내, 학습코칭 등 학습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는 검정고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스스로 공부하여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검정고시에 관한 시험정보와 학습정보 안내를 제공이 필요하며(최영애, 2006; 황정숙, 2002; 금명자, 2004) 좀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하여 ‘학습동아리’ 혹은 ‘청소년 공부방’같은 모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회복시키고 낮아진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기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학업 외에도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시설의 확대와 아울러 새로운 학습 환경과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학력인정 시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성장 방안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무성, 2005; 최이원, 2003)에 의하면 멘토링은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동기부여하며 학업성취 및 진로개발 뿐만 아니라 인격적 발전을 이루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은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자아가치관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취업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노동혹사, 임금착취, 폭언 등의 부당대우와 직업의 제한, 전문성 부재 등 직업에 대한 인식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등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학업중단 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전병유 · 이상일, 2003). 학업중단으로 인해 안정되고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형태의 서비스직이나 영세업체의 반숙련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부족으로 실업률도 높다(김경식, 1997). 따라서 김정아(2002)와 이광호(2002)도 말했듯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업에 따른 문제점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임금착취, 노동혹사 등 노동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잘 모르고, 직업정보가 부족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많아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지역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망을 구축하여 직업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구인, 구직 정보제공, 직업알선 및 고용을 촉진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 및 직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일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목적의식 부재, 자신감 부족,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다.

박종원(2002)은 진로목적의식 부족, 진로정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진로의사결정능력 부족 등의 진로장벽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고민하는 진로미결정 관련 요인이 ‘결정성’ 문제임을 밝힌 이기학 · 한동철(1997)도 진로의사결정의 진로장벽을 이야기 하였다. 이은경(2001)과 Popma(1990)은 자신감은 진로장벽에 대처하고 진로선택이나 목표, 혹은 진로관련 행동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 Taylor & Betz(1983)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진로 결정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것을 밝히며 진로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삶의 목표는 인생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목표설정에 방해를 받고,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송명자(1995)는 청소년기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생애설계 및 직업선택과 관련되는 정체성 확립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처럼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금명자 외(2004)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다 보니 의욕을 잃고 자신감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다. 연구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성취, 직업체험, 특기적성 프로그램, 시간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성취프로그램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는데 적합할 것이고, 직업체험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기적성프로그램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발휘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시간관리 프로그램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자신의 적성 및 소질 개발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목적의식을 통해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지체계(시스템 구축)를 원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후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고 진로결정을 내려야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및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서로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연결망을 형성하여 학업중단 후 다양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시켜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그들이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구본용(2005)과 권혜수 · 류진아 · 장진이 · 이경아(2006) 등은 위기청소년의 지원모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윤철경(2005)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 파악과 평가를 통해 지원시설이나 지원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행되는 사업도 중복되거나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연계체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허철수(1997)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다소 초보적이고 개별적인 노력분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 소속 학교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 수준에서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을 예방하고 이들을 적절히 지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상담기관, 보호 수용시설, 청소년 수용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각 기관 연계를 통해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적응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 학교, 지역사회체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중단 후 가족들의 반응은 사례마다 다양하였다. 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가출이나 가족과의 대화 단절,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거나 자신의 일탈된 행동을 반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과 자신감을 보였다. 이처럼 학업중단 후 가장 중요한 타자인 가족들의 반응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격려, 관심을 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의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은 학업중단 후 이들의 진로선택과 진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에 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가족체계는 정보제공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연결망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지원망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업중단의 예방 및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의 부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 후의 진로 의사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상담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면대면 상담으로 학교 부적응과 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판별 할 수 있는 예방책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상담을 병행하여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업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진학, 직업선택, 복교에 대한 정보 및 안내를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로 복학한 복교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복학했을 때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맞이해 주는 분위기와 다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간관계 중심의 정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복학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 및 상담이 필요하고 또래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또래상담 및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명자 외(2004)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정도가 학교를 그만 둔 후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실제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은 31%에 불과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디에 요청해야 될지 막막했다가 41.1%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참여자들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어디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집하여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들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중단을 통한 경험과 진로장벽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이러한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진로를 탐색, 성취해 가는 과정은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업중단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성취하기까지의 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이 가진 진로에 대한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을 탐색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겠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시행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학업중단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업중단 현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세계의 숨겨진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탐색해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체보자와의 비교적 장기간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학업중단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 가족, 교사 등의 의미있는 타인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업중단 문제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진학지향형 즉, 복학을 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유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고미숙(2005). **중학생의 중퇴 원인 지각과 원인귀속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주영아, 한동우(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구자경 · 홍지영 · 장유진(2001). 청소년들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 특성연구. **상담과지도, 제38권**, 149-180.
- 권이중, 권혜수, 김동일, 허철수, 박병훈(2004). 학교밖 청소년 길 찾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판식 및 학술 세미나.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1-7**.
- 권현진(1997).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수, 류진아, 장진이, 금명자, 이경아(2006).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한 학교상담 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 권혜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2004).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 연구. **청소년상담문제연구(총서)**.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 299-317.
- 김경식(1997). 중 · 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교육사회학 연구, 제7권, 제1호**, 1-24.
- 김기형(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요인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규(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전북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태(2002). **고등학생 중퇴원인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연구소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 정정훈, 이영민(2006). **미운오리새끼: 한국초임교사의 일년 생활**. 서울. 문음사.
- 김영천(2010).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문음사.
- 김은영(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아(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외 (2006).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지혜(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화 외 (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민(1998). **복고를 원하는 중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1).
- 박영숙(1999). **학교환경이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창남, 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207-238.
- 박현선(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 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2000).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연구. **서울특별시**.
- 서울YWCA(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YWCA 진로진학상담실**.
- 서유석 외(2000). 경기도 실업계고교학생 중도탈락예방을 위한 진로 및 상담활동 활성화. **경기도 교육청**
- 성윤숙(2006).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대한 탐색. **한국청소년개발원**.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송광성(1992). 정학 · 중퇴청소년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통권15호, 80-100.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신현숙, 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 위험 재학생의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제16권, 제3호, 121-145.
-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안현의(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 유성경,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 연구**. 서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윤미경(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 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2005) 한국의 위기청소년 진단 및 정책과제. **학교운영위원회**. 68: 91-97
-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이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25-39.

- 이기학, 한동철(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개인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비교 연구. **고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335-349.
- 이병환(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 제29권, 제1호.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용(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개발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시형, 박현선, 이세용, 이소임, 이영란(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2006).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호, 지승희, 장미경(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 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문화관광부. **한국 청소년상담원**.
-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 인권운동사랑방(2002). 청소년 노동실태 보고서. **카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
- 장석민(1989).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KEDI 연구 보고서**.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3-21.
- 정무성(2005).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선호와 참여의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26-50.

- 정일동(1997). 중퇴생의 예방을 위한 진로적응력 프로그램 개발 방안. **진로교육 연구, 제 7집**, 81-114.
-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2008). 학업중단 청소년. **한국아동학회, 제30권, 제6호**, 391-403.
- 조아라(2000). **중·고등학교 학교 중퇴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 연구, 제9권, 제2호**, 1-22.
- 조영숙(2007). **학교 중도탈락 현상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2001). 경기도지역 중퇴생 선도, 보호방안 프로그램연구. 경기도.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 조용환(1999). **질적연구**. 교육과학사.
-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주금옥(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참여연대 알바권리찾기 캠페인. **제1차 정책토론회**.
- 최영신(2001).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총서1**.
- 최영애(2005). **원주시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이원(2003). **중학생 멘토링 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1993).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제.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 한수현(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준상(1997). 중퇴생의 진로 선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진로교육 연구, 제 7집**, 115-134.

- 허철수(1998). 잠재적 중퇴생을 위한 시군구 상담실의 상담지원체제. 청소년대화의 광장. **중도탈락학생 예방체제 개발을 위한 콜로키움.**
- 홍나미(198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임숙(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학교중퇴자의 사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미, 신현숙(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제8권, 제1호, 229-245.**
- 황정숙 외(2002). 학교부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 강원도청소년연구. **강원도 청소년상담실.**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사회과학연구, 제 2권 1호.**
- Albert, K.A. & Luzzo, D.A.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1-436.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3*, 344-358.
- Crites(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Dusek, J. (1991).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3rd ed.)*. Pali Aito, C.A: Science Reserch Associates.
- Dupper, D. R. (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s : Guidelines for School Social work in Practice*. Social Work Education, 15(3), 141-149.
- Finn, J. D. (1993). *Framing dropouts: Note on the politics of an urban public high School*.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 and practice*(pp. 67-109).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 Hackett, G., & Byars, A.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22-333.
- Kaplan, R., (1984). *Impact of urban nature: a theoretical analysis*. *Urban Ecol.*, 8: 189-197.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373-4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 Lent, R. W., Brown, S. D., Veerasamy, S., Talleyrand, R., Chai, C.-M., Davis, T, Chopra, S. B., & McPartland, E. B. (1998). *Perceived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Chicago.
- Lent, R. W., S.D. Brown and G. Hackett,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 Counsel. Psychol.*, 47: 36-49.
- Levine (1986) *Educational reform for disadvantaged students : An Emerging crisis*. West Heaven, CT :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 McWhirter, E. H., Torres, D. M, & Rasheed, S. (1998). Assessing barriers to women's career adjustment. *Journal of Career Adjustment, 4(6)*,



425-449.

- Merriam, S.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 Jossey-Bass.
- Mortimer et al (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 Borman K & Reisman J (eds). *Becoming a worker*.
- Murphy, J. J., & Duncan, B. L. (1997). *Brief intervention for school problems*. New York: Guilford.
- Natriello, Gary and Edward L. McDill. (1986). Performance Standards, Student Effort on Homework,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59(1), 18-31.
- Polk, Kenneth. (1984). *Juvenile Diversion: A Look at the Record*. Crime & Delinquency, Oct84, Vol. 30.
- Shuttleworth, C. L.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Swanson HL, Ashbaker MH, Lee C. (1996). *Learning disabled readers working memory as a function of processing demands*. J. Exp. Child Psychol. 61:242-275.
- Swanson, J. L., & Toke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344-361.
-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1-106.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31-450.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c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331.

Wehlage, G. G., Rutter, R. A., Smith, G. A., & Lesko, N. (1989). *Reducing the risk: Schools as communities of support*. NY: Falmer Press.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barriers of teenage school  
drop-outs and the supports to them

Kim, Gun Yo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 bong

This study\* aims to devise the ways to support the teenage school drop-outs who are preparing to settle themselves in a society based on the career barriers they will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carrier search.

According to Educational Statistical Yearbook of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White Book, the number of teenage school drop-out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reasons for that become diversified, too.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reer barriers they will experience during carrier search due to many different reason and to find the ways to support them. The problems set for the study are as follows;

- (1) What are the career barriers that teenage school drop-outs experience after they leave schools?

---

\* This paper is the master's thesis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n Aug. 2012.

(2) What the supports that the teenage school drop-out need because of the carrier barrier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career barriers that the teenage school drop-outs will experience through the process of career search in depth based on a qualitative study. To to this, pre-interview was conducted from May 2011 till Mar 2012, targeting 20 teenage school-drop-outs commissioned to ○○ center, and then 9 school drop-outs who intended to study further by means of returning to schools or qualification examinations were selected by means of objectiv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 was analyzed through domain analysis, classification analysis, and triangular verification, and then the carrier barriers and the supports for teenage school drop-outs were investigate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eenage school drop-outs experience carrier barriers - difficulties in learning, difficulties in time management, a lack of a sense of purpose, a lack of confidence, difficulties in making rational decisions, difficulties in gathering information, a lack of work experience, and emotional support, etc.

Second, the ways to support them for their carrier with respect to time management, collection of information, learning, employment, and professional counseling was sought after based on their carrier barriers and request for supports. In addition to this, the emotional support respecting and understanding them as they are rather than having negative image about them is needed so that they can search their future carrier path and overcome the carrier barriers.

Based on the findings as above, the supportive plans including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development of learning programs, introduction of mentor system relating to the teenage school drop-outs' need for learning, employment and program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for building

confidence and a sense of purpose, and decision making for future carrier were suggested. In addition, this study unveiled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supportive system provid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supports based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families,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will in turn help the teenage school drop-outs to adapt themselves to the society, develop their own carrier path, and function as members of a society. In addition, the support and interest of families, school, and local communities for the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m to develop their carrier path, overcoming carrier barriers.

# 부 록

[부록1] 연구참여 동의서 ..... 111

##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 연구**

**연구자: 김 근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진로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번 면접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면접은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기 원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될 귀하의 신상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 내용 중에서 귀하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귀하의 협조는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관련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를 허락하시면 다음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서 제공한 정보가 본인의 허락 없이 누출되지 않을 것 이고,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 √ 본인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 본인은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연구를 위하여 본인의 생활에 연구자가 참여할 것을 허락합니다.

본인                    은(는) 위의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여자

(서명)

연구자

(서명)

년    월    일